朝鮮日報
夕刊
二十八日(土)
本紙朝夕刊十二面

옴 피부병
하벽고
青山膏
本舖製

池田財經政策

軍需供給第一義로
物資需給貿易振興企圖
總動員法一部急施

【東京電話同盟】池田藏相兼商相은 二十七日賀屋、吉野兩前任者와 事務引繼를 完了하고 마침내 本格的戰時財政經濟政策統一强化에 進出하기로되엿는데 池田藏相으로서는 戰爭目的을 遂行키爲하야 軍需資材의 圓滑한供給을 第一義로하는 物資需給調整及 貿易爲替政策에 最大의 力點을두어 大藏、商工兩省의 緊密한 連繫를 圖하야 所期의 成果를 收하려하고잇다 어에 藏相은 午前에는 大藏省 午後에는 商工省에登廳하야 事務를 執行할터인데 特히 爲替及貿易政策에對하야 大藏省의 爲替局 商工省의 臨時物資調整局及 貿易局等關係局課長會議를 頻繁히 開催하고 또 從來의 顧問會議를活用하야 大藏商工兩省 相互間의 連絡에도 遺憾업시하기를 期하야 協力機能을 發揮하므로써 速히 適當한 具體策을 樹立하려하고잇다 藏相策은 就任의 第一着手로 左의具體方策을 樹立實行하려고 企圖하고잇다

一、生活必需品物價抑制急施
一、輸出振興의 積極策으로 採擇할 輸出品原料의 輸入緩和

右二點으로 前者에關하야 藏相은 現行暴利取締로는 힘이 弱하야 到底히 이를 抑制하기 不可能하다하야 何等別途의 補給策을 講究하지안흐면 안될것이라는方針을 取하고잇다 그리고 어에 關하여는 總動員法의 一部適用이 早晩急施하게될것이다 그리고 輸入緩和實行에 關하여는 現在 非難이 集中되여잇는 業者에게 輸入許可가된 物資에 對하여도 輸入爲替의許可가 困難한現狀에 鑑하야 大藏商工兩省局內의如何한 缺陷에 依하야 생겨는가를 보아 缺陷이 어잇스면 即時 그除去措置를 하는 同時에 積極的輸出振興을 爲하야 輸入緩和斷行策을 樹立할意向이다 (寫眞은 池田藏相)

歸德城內進入
孫集西南端一線占領

【北京二十八日發同盟至急報】歸德으로向하야 殺到한 我○○及○○兩部隊는 二十八日새벽歸德城에突入 繼續하야 殘敵을掃蕩하면서 內城으로突入 各部隊도繼續하야 午前九時四十分 繼續入城 歸德城은 바야흐로 全然我軍에게歸하고 城內到處에 日章旗가 飜揚하고잇다

【北京二十八日發同盟至急報】我○○部隊는 二十八日午前九時四十分南方으로부터 續續歸德內城中에 入城하는中이다

【北京二十八日發同盟】我軍은南北兩方面으로부터 歸德을猛攻하는中인데 二十八日 午前七時現在의 狀況은 左와如하다

一、孫集方面으로부터 前進中인 我部隊는 歸德 虞城道城으로부터 隴海線길로에 達하야 目下三方面으로부터 歸德城에向하야 猛攻하는中이다

二、隴海線附近으로부터 迂回하야 西進한○○部隊는 午前六時頃敵의 第一線陣地를 占領하고 第二線陣地를攻擊中 그리고 七時二十分頃에는 敵右翼陣地의 要點인 蔡道潘를攻擊、目下歸德西方으로부터 市街에 向하야 攻擊하는中이다

三、歸德城內의敵은 我壓迫猛攻에極度로 動搖하야 一部는西方으로潰走하야 我軍의 一部는 城內東門地區에 進入하엿다고報道된다

【北京二十八日發同盟】二十六日虞城을占領한 ○○部隊는 二十七日孫集의敵 第一線陣地를攻擊하야 二十七日午後十時 孫集西南端一線을占領한다음 同地의敵을 驅逐하엿다 孫集陷落은 歸德防備에致命的打擊을與하는것이다

그리고 二十三日夜碭山을占領한我○○部隊는 敵을追擊 西進을續行하야 二十七日 歸德西方馬城鎭南方約十粁의 吳新庄附近에서 集結을終了하고 夜襲을敢行하야前進하는中이다

歸德은?

【北京二十八日發同盟】皇軍의突入을傳하고잇는 歸德은徐州로부터 西方을相去하기 二百四十五키로요 河南省首府開封의 東南百三十一키로에잇는 隴海線上의要衝이다 歸德에는 內城과外城이잇다 外城은泥土의城壁으로圍繞되고 內城에는城壁이 파로쌋다 人口는 約三萬이오 著名한絹生産地이다 歷史的으로보면 어느帶는 昔日의所謂中原의 中心이라할것으로 禹、商、周、秦等支那古代의 遺跡은 이로枚擧할수가업다 歸德은 隴海線沿線에 當하는同時에 山東省曹縣、安徽省亳縣外 考城、柘城、虞城等으로가는 通路가잇서 交通至便한地로 徐州敗退後의支那軍은 同地에 大軍을 集結蟠踞하면부터는敵의第一線根據地가되여 我陸의 策戰의好目標가되여잇섯다

李宗仁 潁州에서指揮

【上海二十八日發同盟】徐州會戰에서의 支那側總指揮官李宗仁이 徐州에서 敗退한後의 消息에對하야는 여러가지로 말이만흐면서도 全혀不明하엿든바 最近支那軍當局方面으로부터 傳하는確實한 情報에依하면 李宗仁은我軍의 徐州攻略第一戰에서 右手에 負傷을 當하고 即時 部下將領와함께 徐州를 脫出하야某處에서 治療를바든後 目下再次前線指揮에 當하고잇다고 한다 支那側의 一部에서는 李宗仁은現在安徽省西部의 要衝潁州에잇다고도傳한다

大每連絡員重傷

【○○二十七日發同盟】二十七日午後三時○○에서 敵迫擊砲彈으로因하야 大阪每日新聞連絡員織田은顔面에 重傷을 當하고 織田特派員은 右手에負傷하엿다

陳立夫主催로
漢口서全國青年團體大會開催
今後對處策討議

【上海二十七日發同盟】漢口에서온 情報에依하면 二十六日漢口에서 陳立夫主催下에 全國青年團體大會가開催되여 山東、山西、江西、四川各省青年團代表外 湖北、湖南、貴州、雲南、廣東、廣西의 學生代表도 參加하야 三民主義青年團으로 今後에 對處할方策에 關하야 積極討論하엿다고傳하는데 近近三民主義擁護의 一大示威運動이開始되리라고觀測되는데 反共産主義의 首領格으로 ○○國首領者陳立夫가共産黨에 對抗하야 三民主義陣營으로 青年側을 獲得하려하는은 자못注目된다

獨人顧問에代身해
蘇佛顧問을招聘
猶太系六名은撤歸不肯

【上海二十七日發同盟】今回의徐州會戰은 蔣介石이가 蘇聯顧問의 계획과 戰術을 採用치안코 獨逸人軍事顧問의 大兵團을 集結하야 主力戰에依하야 決戰할 것이라는 獻策을 採擇한結果라한다 獨逸人顧問은 國民政府部內에서도 非常히不評을案하고今回에敗北의直接原因이 되엿다한다 現在이미四十名의 獨逸人顧問中 猶太系六名만이 撤歸命令을不肯하엿슬뿐이고其外는모두撤歸하엿다 獨逸顧問에代하야蘇聯顧問이採用되게 되엿고 其他佛國人顧問五名이 招聘되여、最近雲南으로부터 漢口에 到着하엿다는데 이는非常히注目되고잇다

佛顧問近近任命

【紐育二十七日發同盟】在支獨逸人軍事顧問四十名의 撤歸決定에伴하야 國民政府는 其代身으로 佛蘇兩國으로부터 軍事顧問을招聘하기로되엿다고傳하는바 二十七日紐育에達한 UP漢口電報에依하면 最近佛國軍事顧問招聘에對하야 原則的協議가 成立되엿스나 佛國政府도 別로反對치안는다는 旨의意向을 表明하엿슴으로近近任命發令을보게되리라한다

東條英機中將
杉山陸相과要談

【東京電話同盟】東條英機中將은 二十八日午前九時十五分 官邸에서 杉山陸相을 訪問하고 一時間에亘하야 會見하고 要談하엿다

遞信局海事
出張所長會議

遞信局에서는 仁川、釜山、鎭南浦、新義州、元山、木浦、淸津、羅津、群山의各遞信海事出張所長을 招集하고 三十日부터 五日間에亘하야 遞信事業會館에서 事務協議會를 開催키로되엿다 그리고 第一日은 政務總監의 訓示와山田 遞信局長의 訓示가잇슨後 協議로 드러갈豫定이다

反復하는敗戰報에
漢口防備를增强
中央軍續續增派配備

【上海二十七日發同盟】徐州會戰以來反復하는 敗報로 漢口方面의 恐怖는 極端에達하야 最近情報에依하면 漢口市各處에 防空施設을 創設하고 要所要所에는 페트뢰카를 構築하야 市內防空施設强化에 狂奔하고 잇슬뿐아니라 對岸龜山을 中心으로한一帶에亘하야 鐵條網과塹壕를 網目과如히設하야 附近山地에는到處에 高射砲를裝備하엿다 그리고武漢方面의 防備에當케하기爲하야 第二戰區方面으로부터 萬耀煌麾下의 第三師 王東原麾下의第五師 吳奇偉一部의 中央軍이 이方面에增派 配備하고 잇다 國民政府는 今後保安에는 四川軍을 主로參加식힐것이라하야 四川保安司令王纘緒에게 새로四萬의四川軍編成을 命令하엿스나 王은아직 諾否를 回答치안는다

一般鋼材
自主的統制至難

朝鮮內鐵鋼材配給統制中特殊鋼(中空鋼)은 解決을 보앗스나 一般鋼材配給에 關하야서는 從來의 朝鮮의 配給의 特殊性으로 依然朝鮮의 自主的配給統制가 至難한 狀態에 잇서 그形勢가 注目된다 鋼材에 關하야서는 中空鋼等同樣으로 朝鮮內의 需要者團體、移入乃至指定商團體를 各其結成케하고 統制할計畫이엇스나 從來부터朝鮮의 鋼材配給은『메ー카ー』의指定商으로서는 三菱、三井等에不過하고 其他는 內地鋼材 共販의 指定商 主로 大阪側의 從屬關係에 잇슴으로 右朝鮮內를 一單位로한統制로는大阪의 共販指定商이 全商圈을被奪케될으로 朝鮮內의 統制計畫에압서 內地共販에 嚴談한듯하다 從하야 內地共販에서도 指定商의 關係上朝鮮에서 右統制團體가 成立되드래도 鋼材가配給되지안는다는立場이요 新統制가進行하다 어狀勢는 今後의鋼材配給의 窮屈化가豫想되는만큼 解決이切望된다한다 勿論 이에는 朝鮮의統制意圖를 內地指定商에 誤解한것도잇고 도 手續上의 缺陷도잇는듯하다

췌코軍用機又復
獨逸領內에侵入

【維也納二十七日發同盟】最近獨逸國境에 頻頻히軍用機의 越境이傳하고잇는바 DNB通信社維也納支局은 二十七日又復左와如한越境事件의 發生을 報道하고잇다

B九一號의 標識을가진 췌코軍用機一機는 二十七日 獨逸國境그룬드른(舊墺太利國)과의市街上空을 低空飛行하엿다 數萬의 市民은 同機의 搭乘者가重要地點을 撮影하는것을 目擊하엿다 同日의 視界는 明瞭하야 國境標識도 極히分明히보인만 事實로서 推測하면右國境侵犯은 軍事的目的에서나온計畫的行爲인것은 疑心할餘地가업는것이다

獨正式抗議提出

【프라하卄七日發同盟】프라하駐在獨逸公使아이젠로르博士는 卄七日 췌코外務省을訪問하고 췌코軍用機의繼續的 獨逸領侵犯事件에對하야 正式抗議를提出하엿는바 抗議文은 一通으로되엿는데 內容은 比較的穩健한것으로 觀測되며 췌코外務當局은 事件을調査하는中이라고答하엿는데 一方췌코政府도 二十七日駐獨마스토니公使에 訓令을 發하고 獨逸軍用機의 췌코領侵犯에 對하야獨逸政府에 抗議를 提出하도록訓令하엿다

八面鋒

朝鮮서 日本內地 가는데 渡航證明이 必要하다는것은 當局의指示가 아니엇스므로 업서도 無關하다고。

◇그러나 水上署에서 渡航할수업다면 釜山까지 갓다가 도리와야하니 이點으로보면 證明制度가 잇는것이 조흘뻔。

◇그러나 原則으로 어 制度를廢止하고 거기가 勞働하러가는 사람만 못가게 한다는것만도 큰 便利。

◇아니 便利보다도 사람 待接、差別撤廢。

◇今後問題는 勞働者에게까지 이 制度를 撤廢할것

◇今年夏休에는 中等以上學生에게 勤勞精神을 涵養코저 勞役戰線으로 動員한다고。

◇鍛가름 意志、몸가름 身體를 맨들기 위하야 夏節勞役의 勵行은 칭찬할만한 일。

◇忍苦鍛鍊、刻苦勉勵 써 剛毅한 靑年이 되게하라。

孫科近近
巴里를訪問

【莫斯科二十七日發同盟】去十七日再次莫斯科를 訪問한國民政府特使孫科는 繼續하야 蘇聯政府當局과 對支積極援助에 對하야折衝을거듭하고잇는바 마츰내 近近 莫斯科를出發하야 巴里로 歸還하기로되엿다 孫特使는 巴里를 訪問한後 丁抹、스웨-덴나 諸國을 歷訪할模樣으로 二十七日 蘇聯當局의 手續을取하엿다 그리고 極東赤軍司令官브류헬元帥도 目下莫斯科에 滯在中인바 孫科의莫斯科訪問과 關聯하야 注目되고잇다 (寫眞은 孫科)

各軍將領會議에서
蔣介石作戰方針訓示

【上海二十七日發同盟】蔣介石은 去二十二日漢口에서의 各軍將領會議席上 今後의作戰에關하야訓示한바 我等은거장巧妙且 完全한 方法으로써 漢口를防備할 自信이잇다 日本軍은全혀 두려울것이업다 今後我等이 使用하는武器는 步兵銃、機關銃모두 蘇聯製를使用하므로 訓練에注意하라고逃하엿다 後退하시 徐州附近으로부터撤退한 諸部隊에對하야는 今後日本軍의 占領地域內에서의 遊擊戰을 有利케하기爲하야 我軍은 輕裝武器를 各處에集積하고 巧妙히隱匿하여두엇스므로 占領地域에 잇서서 好機를노치지말고 遊擊戰에使用하라 我軍의相互連絡은 困難하나 暗號로써 連絡을取하라는 訓令을發하엿다고한다

厦門攻略에서
副師長等戰死

【上海二十八日發同盟】支那側情報에依하면 去十日未明을 期하야敢行한 我陸戰隊有力部隊에依한 厦門攻略은 海陸空으로부터의猛攻으로 周章狼狽한敵은 兵力不足이란 美名下에 市內保安隊義勇軍等을 强制로前線에出動케한바 어느部隊는 到着前 我軍艦에依한 砲擊과航空隊의 爆擊及機銃掃射에依하야 거의全滅되엿다 第七十五師 副師長 韓文英은 厦門市로부터 向하는 途中 我陸上部隊에 依하야 機銃彈을마저 重傷하야 不得已 後退하게되엿다 後任으로指揮에當케하려든 旅團長도 마츰내戰死하엿다

人事

▲瀨戶保太郎氏(大每顧問)入京 人事次今日本社來訪

時事解說
內閣制度改革

政治의目標자 [illegible] 革을 意味하는것이요 어改革의中心은 內閣에잇는것이다 따라서 政治機構의 改革은 必然的으로 內閣制度의 改革을 目標로하게된다 內閣制度의 根本的改革으로列擧되는 項目이 만치만은 [illegible]

[illegible] 革의核心은 亦是 國務大臣과 各省行政長官과의 分離를 意味하는것이다。

◇

[illegible] 上 各省大臣이된 者는 同時에 法上當然히 國務大臣이 되게되는 어 關係를 消滅시켜 兩者의 分離를 主張하는 根據에는 (一)國務上의 理由와 (二)行政上의 理由에서이다 國務大臣은 國務全般의 立場에서 天皇을 輔弼하는까 닭에 自己의省인行政部局의 要求를 抑制하고 國務全般의 利益을 圖謀하야할것이 [illegible] 의理由이다。

◇

그러하고해서 國務全般의 利益을 圖謀한다고하야 國民生活에 直接的으로 影響을주는 行政事務를 無視하게된다면 行政事務로서의必 [illegible] 行政上의 理由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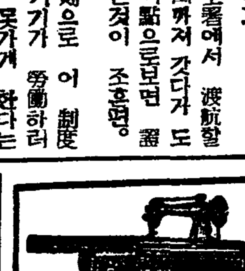
다시말하면 國民生活에直接影響하는 行政에는 當該事務一般에對하야 相當한智識이잇고 필수잇스면 一定[illegible] 者를 長官으로 專任하되內閣이 更迭되여도 各省大臣은 更迭되지안토록 하야 安心하고 愉快히職責을遂行토록하자는것이이制度改革의根本的精神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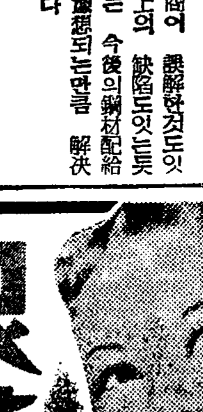
支那側에서報道

【上海二十八日發同盟】[illegible] 方面에서 [illegible] 占山軍을 [illegible] 行 [illegible] 方不明을 [illegible] 支那側에서는 西安의 [illegible] 馬占山으로부터 [illegible] 스스로二個旅團의 [illegible] 大靑山西北方高地로 [illegible] 途中四月十九日我砲擊을 바더 即死하엿다 遺骸는五原을 經由하야 近近西安에 到着할터이다

少年朝鮮日報今日發行

ハイナンン

國産ガシンスミシンテ

K.M.C
特約店募集
コリアーミシン製作所
朝鮮京城府北本町
電四〇番


廿世紀フォックス超大作
シドニー・ランフイルド監督
フィギアスケート世界NO1
ソニア・ヘニー主演
銀盤の女王
日活京都特作
松平外記
尾崎純監督
沢田清主演
日活多摩川特作
情熱の詩人啄木
熊谷久虎監督
島耕二主演
朝日・京日
パ社特報ニュース
29日より
黄金座

無線電信通信技士短期養成
諸官署、電信、鐵道諸會社無線電信技士ㄱ目下大拂底ヲ來セリ 京城府蓬萊町一ノ八三(京城驛後) 電話本局(2)三〇六五番 朝鮮無線工學院
〆切 六月廿五日ヨリ十一月廿五日迄募集人員、四十名入學資格、小學普通學校卒業廿五歲迄ノ男子ナ入學案內送呈ス(要三錢切手封入)入學六月廿日迄先着順定員締切
本報咸南支社
咸興府大和町三丁目ノ
電話一一四三番

延禧莊住宅地
第一期工事完成紀念
特典附大賣出
◎資産의 保全確實한投資는 土地에限한다!
◎保健과空襲防護에는반드시郊外住宅地이다!
物價暴騰時에잇서서
人氣의焦點! 暴騰은目前에닥쳣다!
賣出……總七十五口 一口六十坪으로 三百坪까지
定價……整地一坪 三十五圓으로 三十九圓까지
特典……先客十名에限하야 定價의五分引
이外全客에 京電十圓券贈呈
勿失此機!!
俄然大好評
곳오시라
賣出中各日曜에는 西大門으로延禧莊까지 自動車로 迎送하겟습니다
文化施設完備
交通至便
住宅地의王座
延禧莊
五月十五日부터
五月三十日까지
京城府北阿峴町
延禧莊土地經營株式會社
電話(光)二六九五番
市內案內所
南大門通三丁目 株式會社 吉川商店
黃金町一丁目 株式會社 裕豐商會
長谷川町 朝鮮建物株式會社
案內書贈呈
割賦償還의便도잇습니다

錢十五圓八價特大靴民國

多年의努力으로 舶來品代用에完成을得한 今日 어는오로지 過去의 江湖諸位의 愛護하여주신 結晶으로 멧고 滿天下에 大宣傳하기爲하여 特製國民靴로 命名하고 大廉價로8.50에 此期限一漏의恨이업시提供하오니勿失 此期하시고 一次愛用하시라
二二號 國民靴
注文方法
足型을그리고靴文數와住所氏名을明記하신送料로서添付하시고必히錢九十二錢切手를郵便書信으로注文하여주십시오
型錄請求次第無代進呈
舶來品代用總革靴
平安製革社洋靴部
振替京城一九四二四番

慶南一帶에豪雨 交通機關大混亂

各河川氾濫으로處處에騷動 釜山府內엔浸水家屋二百戶

水魔또狂燥!

【慶南支社電話】 부산방면[illegible] 경상남도일대에는 이십칠일오후열한시비가좀부터오후가퍼붓기시작하여이십팔일아침까지도계속중인데이로말미아마 각하천이범람하고도자동차기차선로등이침수흑은 파괴되여소동중으로 경남경찰부에서는 관하각서를동원시켜 수해방지에 전력을다하고잇다 그리고 부산진(釜山鎭)기점 여섯『키로』와 삼랑진(三浪津) 기점 유배『미돌』 지점에는 토사가허무러저나렷다 그리고 부산부내에도 침수가옥이 이백여호에 달하여 집집마다 법석을 이루고잇다。

鐵道局에서 實習校生徒들의 夏期實習을歡迎

철도국에서는 매년조선안 실업학교생도의 하기휴가를 이용하야 철도공장에서 실습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잇섯는데 금년부터 널리내지 만수의 전문학교이상의 기계과 생도로 한학교에 다섯명이내를 한도로하야 부산 경성 평양철도공장에 실습을 환영하기로되엿다한다 실습자에게는 실습수당과 실습지사이의 무임승차증도주기로 되엿다한다

精米工監督의黑心

시내 청엽정(靑葉町)삼정목팔십오번지 석종신(石鍾信)(三六)과 통의정(通義町) 칠번지의 심정호 김성래(金聖來)(三四)는 의주통(義州通) 조선정미회사(朝鮮精米會社)의부감독으로 잇스면서 주인의눈을 소겨 현미와『가마스』『까소링』등을 수차나 훔처내여 시내 각미곡상에 팔다가 이를탐지하고 경계중이던 서대문서에게 이십팔일 오전팔시경에 훔처내인 현미를 팔러가다가 체포되엿는데 그피해액이 수백원에 달한다고한다

炭坑의爆發로 死傷者十三名

이십팔일 오전여덟시쯤 복강[illegible] 川村[illegible] 서부이시사호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illegible] 엿슴으로 사무소에서는 경자대를조직하고 구조에 착수하엿는데 이미판명된것만도 죽은사람 어네명 중상자가한명 경상자여덟명으로 아직피해자는 상당히 만흘모양이라고한다

赤色伯爵 巴里에突現

【巴里二十七日發同盟】 『붉은백작』(赤色伯爵) 토방여지(土方與志)씨가 얼마전에 소련(蘇聯)을 빠저나와 불란서에 와잇다는소문이잇서 파리(巴里)에잇는 일본인간에 『센세이슌』을 이르키고잇는데 아직은 아모도 씨의 소재를 확실히알어마친 사람은 업스나 씨가 파리에와잇다는것만은 확실한듯하여 한수일전에 거리에서 토방씨와 맛난사람이 잇다고한다는데 이사람의말에 의하면 일주일전에 거리에서 갈뜻밧게 토방씨와 맛나게되엿섯는데 그때인상으로는 매우건강을 해한것가터 얼골도핼시죽해 보혓다 토방씨는 그저신병때문에 진찰을 바드려고 파리에왓다는말 이외에는 별다른대답도 하지안헛고 주소가튼것도 물어도 가르켜주지안터라고한다 그런데 토방씨가 이처럼파리로 오게된원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풍설이 잇는모양이나 소련에서 추방을당한것이나아닌가하는소문도 돈다고한다

視學委員會議

【大田】 이십팔일오전팔시부터충남도제일회의실(忠南道第一會議室)에서는 시학위원회(視學委員會)가개최되엿는데 회의사항은대개학급증가 이부제교수성적에대한 보고자엿섯고 동대시경에폐회하엿다

『儒敎振興策은?』

中樞院各議官에게 南總督諮問을發送

남총독은 지난이십일에 개최하얏든 중추원참의회의(中樞院參議會議)벽두 훈시에 시국하의 조선인심에 중대한관계가 잇는 유교(儒敎)방면의 활동은 그사명에의하야 전지활발한것이 필요한족 전조선유림은 단합하야 황국신민인신념을가지고 동양도덕의정수(精髓)인오륜의길을 밝혀서 유림의빛나는 생명의부활을도모할것이라고 역설하얏섯는데 그리하야 이와가튼 근본방침아래 유교방면의 활발한활동을기하기로되여 작이십칠일부로 중추원각의원에 대하야 다음과가티 유교진흥에관한 자문을발하엿다

一、時局에鑑하야儒敎振興에關한具體的方策

點數는減해도 力作品不少

朝鮮美展에期待多大

조선미술전람회의작품 반입수(搬入數)만을가지고 본다면 이십육일까지 재일부인 동양화에 백사십사점 재이부인 서양화에 칠백팔십팔점 재삼부인 조각및공예에 백구십삼점 합계일천백이십오점에달하엿는데 이것을 작년에비교하면 백여점가량 감소된터이다 그리고 화전(和田)、교본(橋本)두화백을위시하야 심사위원도 전부입경하엿스므로 금이십팔일부터 삼십일까지 사흘동안에 심사를마치고 입선품을발표할터이며 삼십일일부터 유월이일까지에 특선을발표할터이라한다 또유월삼일에는 창덕궁상과 총독상(昌德宮賞及總督賞)의 수상자를발표하야 신문관계자와 내견(內見)을구하고 사일은 초대일로정하고 오일부터 일반에 공개하게되리라한다 이에대하야 총독부 학무국당국에서는 다음과가티 말한다

총출품이 작년에비하야 백여점감소되엿스나 사실인즉 금년은 시국관계로 내지의각전람회는 출품점이 비상히감소되엿다는 말을듯고『선전』은 보다더 감소되리라하고 예측하고잇섯는데 이번 이가튼 우수한작품이 나오게된것은 실로 기쁜일이다 더욱 금년에는 대작품、역작품이 만허서 그진보향상의 급『템포』에는 놀라지 안흘수업다 유월오일부터 일반에 공개하기로되엿는데 미술장려의 의미에서 또는 예술감상이라는 고상한취미를 배양하는 의미에서 만히 구경오기를바란다 그리고 금년에는 초대범위를 확장하야 현재 육군병원에 수용되여잇는 상병용사를 위안하는 의미에서 외출할수잇는 장병은 전부초대하기로 되엿스므로 당국에서도크게기뻐한다

社倉에毒感流行

【社倉】 평남사창시에는 요즈음 일기가 고르지못한관계인지 독감이 류행되고잇스며 그환자수는 약이삼십명가량이되고 사망자는 벌서일명인바 경찰과면당국에서는 예방소독을 하는등이에 적극적로력중이다

雨後移秧

첫여름철에 들어서 비는 때마추어 자주와서 농사는 대체로 성적이 조흔터인데、이십칠일 밤사이에 비가 또내리엇다 비오뒤틀려서 여기저기 논에는 모심으기를 시작한다 (사진은 청량리에서촬영)

途中의安全爲해선 身分證明依然必要

內地渡航證明緩和에對해 一般의再認識緊要

기보=조선노동자의 내지도항은 여러가지 목적도업시 만연히도항하는자를 제한취체하기위하야 조선인의내지도항에는 노동자는 도항후의 직업이확정되여잇다고 거주지경찰서장이 인정하야 비로소 발행하는 도항소개장(渡航紹介狀)을 가지지안흐면 안되고 노동자이외의 일반사람은 청구에의하야 거주지경찰서장이 발행하는 신분증명서를 필요로하는것은 대정십오년이래 확립실시중에잇는 소위 도항증명제도인데 최근에와서 당국의 이제도에 대한방침이 다소 완화되엿다는것은 기보한바와 가티 노동자에 대한것은 종전과 조금도 변함이업스나 노동자이외의 학생、상인、견학단등 일반에대한 취급에 관하야는 례를들면 경기도에서는 종래노동자외일반의 도항희망자도 반드시 소할경찰이 교부하는 신분증명서를 가지고가도록 하여오든것을 최근에와서는 총독부방침에 따라 본인의 청구에 의하야 비로소 교부하도록 된것등으로 보아 경찰당국의 실제취급이 다소완화되엿다는 정도이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마치 노동자이외의 일반사람은 누구나 경찰의 신분증명서업시 자유로 도항할수잇는것가티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로 더욱도항『뿌로-커』등의 엉터리업는『데마』로 마처 도시 부산항까지 갓다가 정규의 절차가불비하야 도라가는사람이 최근만히생겻다는 사실은 대단유감으로 당국의 실제취급방침이 어떠하든 거주지경찰서의 신분증명서를 밋더가지고 도항하는것이안전하며 내지체류중에도 여러가지로 편의이잇스니 일반은 이제도의실제운용에 대하야 오해치안는것이 긴요하다고한다

警務局森事務官談

이에대하야 총독부경무국보안과삼사무관(森事務官)은 다음과가티말한다

내지도항(渡航)문제는 노동자나 일반여행자가 이제새로 세분되엿다는것이업다 종래 노동자에게 도항소개장(渡航紹介狀)을 교부하야왓고 학생이나 일반여행자에게는 요구에의하야 전부신분증명을 교부하야왓는데 이것은 종래나지금이나 조금도다른것이업다 그런데경기도만은 노동자이외의일반여객 학생등을 규대하야오고 반드시 신분증명을 휴대하여야 도항하도록 방침을 취하야 왓섯스나 이번에 총독부방침에의하야 다른도와가티 일반여객이나학생에게는 요구에 의하야신분증명을 교부하도록 하엿다 이것을세간에서는 전조선적으로 내지도항수속이 완화된것처럼 오해하는 모양이나 실은조선단한문제이다 속칭 도항증명이라고하는것은 사실 도항증명이어니라 도항소개장이다 곧 도항자주지 경찰서장으로부터 부산수상경찰서장에게 소개하는서면이다 그리고 이상에말한바와가티 노동자에게는 반드시 도항소개장을휴대하도록하고 일반여객이나 학생에게는 요구에의하야신분증명을 휴대하도록 하는것이니 이것은 전과같다 그러나 도항후에 무슨조사를하든다던지하는경우에는 신분증명을 휴대하는것이편리할것이다

京畿道內志願兵 廿八名을推薦

前後期生各十四名

이십사、오양일동안 경기도청에서 실시된 육군지원병전형시험에 도내지원자칠십팔명중에서 시험의난관을 돌파하야 영예의 훈련소 생도로 도지사의 추천을 바든사람은 전기、후기각각 열네명식합이십팔명으로 이들은 다시 유월삼일부터 사흘동안부평 산해행사(曆行社)에서 징병검사와꼭가티 엄격한 재시험을거처 비로소 훈련소생이되는것이다

陸軍兵志願者訓練所生徒推薦者

【前期入所】 許憲(高陽郡) 朴熙商(楊平郡) 崔顯榮(水原郡) 文淑藤(漣川郡) 李邦根(水原郡) 崔禧鎬(京城府) 李舒致(楊平郡) 李熙龍(富川郡) 李晩在(水原郡) 李大成(振威郡) 姜錫柱(長湍郡) 洪百基(安城郡) 金顯煥(長湍郡) 徐商奎(長湍郡)

【後期入所】 金福伊(楊州郡) 金在昌(長湍郡) 趙玕行(龍仁郡) 李仁熙(開城府) 李進壽(仁川府) 金武植(漣川郡) 李鎬文(坡州郡) 韓福萬(安城郡) 趙秦行(龍仁郡) 金敦文(開豊郡) 閔丙浩(金浦郡) 金斗煥(驪州郡) 金慶權(長湍郡) 趙鍾甲(坡州郡)

今日·龍山驛에 勇士의遺骨安着

明日에合同慰靈祭

북지 산서전선에서 용전분투하야 만흔공적을 내고 전사한 용사의 유골〇〇주(柱)는 예정대로 이십팔일 오후 한시이십오분 용산역착열차로 말업는개선을하엿다 이날용산역에는 소기(小磯)군사령관 삼택(三宅)총장 기타 총독부각국과 민간각단체 군 관 민오천여명이 엄숙히마지하엿다 예에따라 역전광장에서 조가(弔歌)합창이 잇섯스며 군부측으로부터 정중한 인사말슴이잇고서 유골은 야포(野砲)제이십륙련대로 드러가서 안치되엿다 그리하야 이십구일 오전 열시에 그연대영정에서 합동위령제(合同慰靈祭)를 엄숙히 집행하기로되엿다 (사진은 용산에 안착한용사의유골)

社會主事會議

총독부에서는 오는삼십일오전구시부터 총독부제이회의실에서 각도 사회주사(社會主事)회의를개최하고 [illegible]방면의문제에관한 사항과 사회교화와 군사원호의 중요사항 만주이민 일반사회사업시설등을 협의하기로 결정하엿는데 특히주목되는것은 로동자의알선 보호 수급원활로구전방에대한문제이다 여하튼 각지공사장에서 비상한 곤란을 밧는 로동자부족문제와 조선노동자의 사회문제로되여잇는 노동자보호문제는 과연어느정도로 협의결정될는지 실로주목되는바이다

說敎妨害의暴力團

靑葉禮拜堂에壯漢六名突現 警官假裝코惹鬧暴行

이십칠일 오후여덟시사십분경에 시내청엽정(靑葉町)삼정목에잇는 청엽예배당안에잇는 주일학교교실에서 목사가 설교를하고잇는데 돌연 여섯명의장한이 떠들지여가지고 교실안에까지들어와서 설교를 잘못하니 지버치우라고 큰소리를하며 우리들은 경관이니 설교를 중지시킬권리가잇다는등 욕설을하며 폭행을하므로 청중에는 목사가라일러서 그대로가라고 권유하엿스나 더욱폭행이심함으로 직시 소관용산서에 신고하여왓스므로 경관이 현장에달려가서 대격투끗에 여섯명을 전부체포하여인치시키고 취조한결과 이들은 시내청엽정삼정목일백육십번지 이기찬(李起燦)(二八)외의 오명으로 조직된 폭력단으로 이들여섯명은 수년전부터 일단이 되여서 시내 청엽정 향린공원(香隣公園)을 비롯하여 시내의 각유원지대는 남녀노소할것업시 사람들이 만히 나오는틈을 타서 이가튼 폭력단들은 제철을 만난듯이 빈번이 출동하여 금전을 절취하며 혹은 부녀자들을 감언리설로꾀여 폭행을 감행한일이 빈번하므로 소관용산서에서는 때가때인만큼 금번은예년보다 일층경계를 엄중히하여 이런 폭력단에는 용서업시 엄벌에처할방침이라고한다

全州陸競俱樂部

【全州支局】 체육향상과『스포-츠』정신을 목표로 최근조직하게된 전주육상경기구락부에서는 다음과가티 년중행사를 결정하엿다고한다

▲三月 豫算及事業計畫 ▲四月 部員總會 記錄大會 ▲五月 全州郡對抗競技大會 ▲九月 記錄大會 ▲十月 [illegible]大會 ▲十一月 [illegible]마라손大會

女子中等體育聯盟主催 女子體育大會

加盟한十六個中等校가總動員 全種目을學年別로對抗

京城女子中等學校 體育聯盟主催의第二回 女子中等校 體育大會는 六月二十五日(土)午前八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하기로 되엿는데 今年부터는 籠球、排球、庭球、卓球(二學年以上)도 陸上競技와가티 各學年別로 各校가 對抗케되여 從來의選手制度를 버서나서 全校生徒가 總動員할것으로 女子體位向上을위하야 큰成果를 期待케한다 參加校는 京畿高女、女師、淑明、進明、同德、培花、梨花、貞信、槿花女實 等 十六校가 總動員하게되여 一大壯觀을 보이리라한다

學年別陸上 全部十三校參加

京畿道陸上競技協會主催의 第二回京畿道男子中等學校學年別對抗陸上競技大會는 明二十九日午前九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하는데 參加校는 養正中學、京城中學、京城師範、中央中學、徽文中學、培材中學、京城第二高普、善隣商業、京城工業、昭和工科、龍山中學、仁川中學等의 十三校 各學年代表選手六百名(延人員)에 達하는바 第一回에는 第一、三、四學年에 [illegible]中學이 優勝하고 第二學年에 [illegible] 第五學年에 京城中學이 優勝하엿는데 今年에는 어느校가 覇權을 잡을지 注目된다

實業野球延期

京城實業野球聯盟主催의 春期野球리-그戰 府廳對遞信과 鐵道對京電의 各二回戰은 二十八日午後一時부터 京城球場에서 擧行할 豫定이던바 降雨로因하야 다음과가티 順延되엿다

▲五月三十一日(火) 府廳對遞信(午後四時半) ▲六月一日(水) 鐵道對京電(午後四時半) 以上全部京城球場 그리고 지난二十五日까지의各團의 成績은 殖銀이 六戰六勝으로 首位를 占하고잇스며 遞信、京電이 五戰二勝三敗로 各二位 府廳이 六戰二勝四敗 鐵道가 四戰一勝三敗의 順이다

	殖銀	遞信	京電	府廳	鐵道	勝	率
殖銀	:	2	×	2	2	6	1.000
遞信	0	:	2	×	×	2	.400
京電	×	1	:	1	×	2	.400
府廳	0	×	1	:	1	2	.333
鐵道	0	×	×	1	:	1	.200
敗	0	3	3	4	3	:	:

金九의部下

船中割腹한金炳朝는 平南警察部서手配中의犯人

【平南支社電話】 이십사일상해(上海)에서 조선으로 압송해오든 도중『평안환』(平安丸)의 가운데서 배를가르고 자살을도모하여 상륙직시로 인천(仁川)도립의원에 입원중인 김병조(金炳朝)(三七)는 평남대동군임원면남사리(平南大同郡林原面南四里)출신으로 십수년전 지나에건너가 민족주의운동에가담 두김구(金九)의 부하로 활동중 상해일본영사관편에게 체포되여 호송도중인천압바다에서 호송경관의부주의한틈을타서 자살을도모한것으로 전기김은 중대범인으로 수배중이엇든데 평양에호송해오고저 인천까지출장햇든 중촌(中村)서전(矢田)두순사부장은 할일업시 그대로 도라오고마럿다

醫師試驗 二部合格者發表

지난번에 시행한 의사시험제이부시험합격자는 다음과갓다

後原多喜雄 金鋼烈 崔慶晧 山根淺藏 李基永 金象旭 朴秉協 桑原義正 李錫九 唐澤利政 井本德治 洪永默 金敦煥 玄明珠 盧昌煥 朴斗正 金天鳳 鄭武謨 友石通雄 趙誠奇 金泰鎭 崔孝稷 日高博行 張仁甲 金元楨 文熙煥 李基述 田淵基 金興烈 高橋豊 李道淵 金一龍 尹汝諧 金敎鳳 申金子 金甚姐 金履彬 尹炳憲 朴健柱

今夜의라디오

第二放送 ▲午後六時 노래공부(一)金景貞 ▲六時三〇分 趣味講座 樂焉成 ▲七時三〇分 講演 李海觀 ▲八時(東)室內樂 ▲八時三〇分 漫謠 金元浩、孫一平 ▲八時五〇分 레코-드音樂 ▲九時 俗謠 高一心、笛琴 姜龍洙、短簫 李忠善

第一放送 ▲午後六時(大)童話 ▲六時二五分(龍)講演 ▲七時三〇分(東)歌謠 ▲七時四〇分(東)講演 ▲八時(東)室內樂 ▲八時三〇分(東)長唄 ▲八時四〇分(東)小說

色鉛筆

의복[illegible]이란 지방에 따라서 다르지만 공통된것중의하나는 속옷이 박그로 나오지 안토록 하는것이 하나이다▲서울부인네들이 치마를 걸게입는이유도 바지가 치마밋트로 보이지안케하려는듯이 잇는모양이다▲그러나 미처주의를못하면 버선목을 잘입고도 추잡한모양을 보이는일이 만흔데 예를들자면▲사내들도양복입고 바지 단추를채우지 안헛다던가 와이샤스한끗틀 허리줌으로 벗숙이 노리치고 다니다던가▲여자들도 모처럼 치마를 질거입고도 치마폭을 여미지못해서 속옷이 삐죽삐죽 보이게 하고 다니다던가…▲그런데 평양가보면 여자의 바지통이 치마밧그로라간 나오는것이 흉이 아닌모양인데 그중에서도 기생들이 행주치마가튼짜른치마를입고 바지통을 보이게하고 목욕수건가튼것을 들고헤길로 나도는것은 결코 보암족한 풍경은 아니다

ブマキラー 理想の強力殺虫液

朝報案內

家具 事務用椅子卓子書箱飯 陳列戶棚 ... 特價 ... 京城府 ... 丁目 ... 根 商會

自動車 運轉手 ... 京城府

募集 集金員 ... 京城府 ... 朝鮮小學生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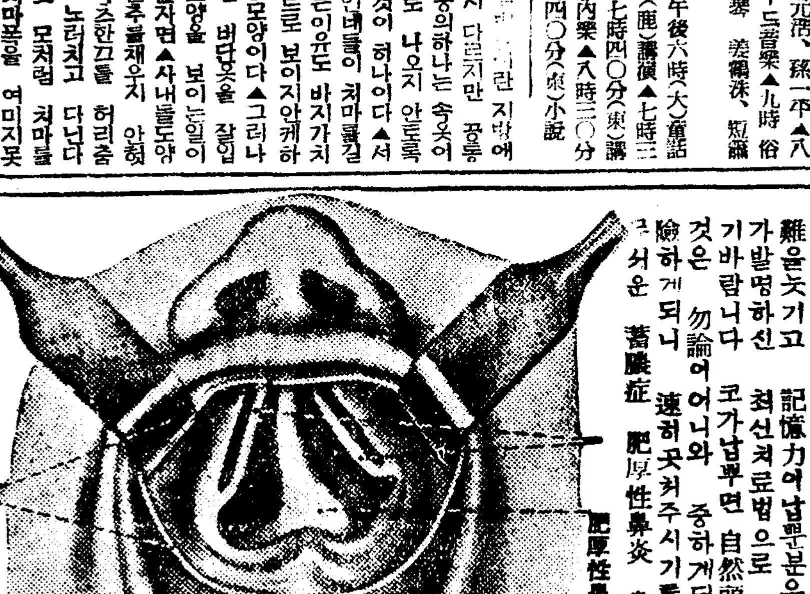
小口貯蓄保險保募集 三百圓均一 ... 京城府 ... 板谷生命保險朝鮮支店

監督所長招聘 一、指定地 ... 二、廿五歲以上 ... 三、... 昭和生命平壤營業所 平壤府 ...

齒科材料地方通信販賣 ... 京城府 ... 天陽商會齒科部 振替京城二九、七四八番

生徒募集 京城高等簿記學院(前期) ▲新學期開始 六月拾日午後 ▲各科 ...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 (電話本局五三三六〇)

京城 中等豫備專修學院 生徒募集 ▲新學期開始六月拾日 ... 第一部、二部、三部 文官科 ...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 (電話本局五三三六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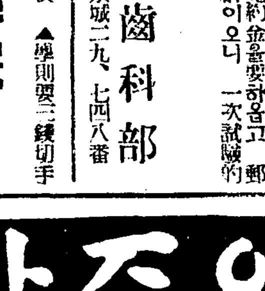
코병잇는분에게 ドクトル湊謙治先生世界的發明의 自宅療法 無代進呈

코가맥히고 흉한냄새가나며 붓고 쑤시고 눈두통이나며 難을듯기고 記憶力이 납분분은 가발명하신 최신처로법으로 根治식혀주시기바랍니다 코가납뿌면 自然頭腦가납버지는 것은 勿論이어니와 중하게되면生命까지도危險하게되니 速히곳처주시기를 바랍니다。 手術을하여도 낫지안는분도 悲觀하시지말고自宅에서 누구라도 自己손으로 손게 治療할수잇는 이最後의療法을 實行하여보십시요 申込하시면 湊謙治博士의『鼻病과그治療法』이라는 순조선말로된親切한自宅療法書를 누구에게라도 無代進呈하오니 지금곳 東京市日本橋區呉服町三ノ八湊製藥東京營業所에 葉書로申込하시요。 肥厚性鼻炎의切開手術

香薰이넘치는頭髮! 자랑스러운頭髮! 그것은金鶴이만드러낸頭髮! 金鶴香油

釣竿とテグス 改良四本繼十八尺二十五錢ヨリ 黑竹元四本繼二間五十五錢ヨリ 蚊頭針大小數百種其他釣具用品全般在庫豊富

釣具百貨及投網 麻絲製投網 四分目 五分目 ... 網絲、岩絲、手網、叉網、袖網一式 小賣型錄 御報次第呈上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久 網 久商店 振替京城二六〇六番 電話本局二七〇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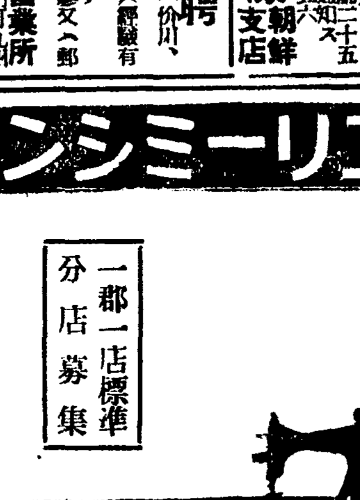


新發見 연주창 專門藥 一淸化丸 效力百中、服用容易、無痕完治 藥價 ... 販賣所 京城藥局

チエリーミシン 登錄商標

一郡一店標準 分店募集

大阪府、市商工(奬勵館主催)コンクール、バイン、蛇の目、其の他廿數點の國產機を使用したる中に日本一のチエリーミシンで御座います。... シンを御備へ下さいませ。



チエリーミシン朝鮮總代理店 日米ミシン貿易社 京義線沙里院本町

明治會館

美人연파레-드完成!

그中에는 女敎員·妓生·幼稚園保母·高女出身·純學生スタイル의若處·工場女·家庭婦人·東京·大連의名ダンサー等十八十色의美女연파레-드拔에完成!!

그들의 ロマンチク한情話 안못할事情은 한번 들어볼必要가잇다

初夏의交際는人氣絕頂인明治會館으로?

明治町東通リ南端 明治會館 電本三七一〇 一均十五錢チランチ·ビール에間書

訃告 蔡振墉入人吉煥氏(奉天支社長) 五月七日午後十時三十分 中國安徽省定遠十字路前線에서 敵의流彈에命中되야 別世하엿기 玆에訃告함

昭和十三年五月二十八日

朝鮮新聞奉天支社員一同 京友親睦會 蔡潘基東昌學振 春煥鉉鉉墉

昭和의常識

「日の丸」는太陽으로、天皇大御을象徵하고國體의[illegible]、國民의[illegible]「日丸」는正義와平和를象徵

[illegible]은十一歲로十八歲까지靑少年을團體訓練하고體位向上、[illegible]心蓄積에努力함、이것이나치스靑年團

小賣店의飾窓은顧客에게陳列商品을推薦하야店內를보이게하는것이손님에商店에親해지게한다는[illegible]

仁丹十數粒이면頭痛과
眩暈 船酔 宿酔 는그當場에消退
이제부터流行하는悪
疫을豫防하기爲하
야는適量의常用이
무엇보다肝要

仁丹은
胃腸을保護하고
血行을조케함
그것은、仁丹主剤의特効와貴藥사후란配剤에依한顯著한効果에依하는것입니다

仁丹은
腦의鬱血을업새고
금방明快케함
滲透하는爽快味는바로腦에作用하야不快、朦朧을一掃하고强記의腦力을만듭니다

仁丹의
口薰은입안의끈적거림을
解消함
훈훈한口薰은일로부터만흔입안의끈적거림을清掃함과함께口腔의腐菌을消毒함

慰問袋에는勿論戰地로보내는便紙에는
반드시、仁丹을同封、炎熱百度！ 氣候不順하고、飲料水가缺乏한戰地將兵의士氣를더욱더욱鼓舞해주십시요

消化와
毒消와
口香의
仁丹

本舗 森下仁丹株式會社

우리차지

집웅게오는비

「애 비는웨오닌」
「비가와야 곡식이자 라고 나무가자라고 풀 이자라고 하지안닌」
「그러치만 애 논이나 바테만 오지 집웅게는 무엇하러오닌」

(…사람 최서방)

빈대업새는데는 증기소독이조와

까스소독은 아모나못할것

이제 여름이되면 빈대때문에방을두고도 행길에 삿자리 깔고자는 사람이만습니다。서울사람들은 집에빈대가 업스면흉가라고한다고하지만 어디 그럴법이잇습니까。그럼을 빈대를집안에 끼여두고서야 어찌 남에게 큰소리하는 주부가될수잇겟습니까。

빈대는 아시는바와 가티 좀체로 한번 끼여노흐면업서지지안습니다。그러므로처음부터끼이지안케 미리극력예방하는것이 상책이오 한번 집안에 이미 빈대가끼엿거든 그저 기를쓰고 잡도록하십시요。

그런데 우리일반가정에서 빈대를 아조업새지 못하고 점점더퍼지게하야 나중엔 빈대에게 사람이 쪼겨서 길바닥에 나안게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마음이약한탓입니다。빈대는 아모래도아조업시하지못한다고 처음부터기를 떠리는데는 까닭입니다。

그저 어쨋든 기를쓰고잡으십시요。빈대가 이이나사람이의이나 아조 단련씨를할작정하고 달려들면 그러케 고약한 빈대라도 업서지고야맙니다。빈대잡이엔무엇보다도 바스러하고 끈기잇게 잡는것밧게 수가업지요 그러기에 서울보다 서 끝에 빈대가 덜한것은 시골부인네들이 강하고 부지런한 탓인가합니다。

빈대가 끼이기 시작하기는 일흔봄부터이나 번쩍성하기는 양력오월부터 구월초순까지입니다。빈대는 보통 방안의 온도로는 한마리가 일년하고 또이개월동안이나 사는데 그사이에 일백오십개로부터 이백사십개의 알을낫고 이알이 일주일부터 열흘동안만 지내면 까서 다시 한달가량지내면 색기빈대가 됩니다。이색기빈대가 또 평균 이백개의 알을낫는다 그늘어나가는것은 이루말할수업습니다。

그런데 어빈대는 대개 더러운곳에 엿는줄알지만 사실 더러운데만잇는것이 아니고 오히려 습기잇고 곰팡내나는데보다 간조하고 깨끗한데 더잘잇습니다。그러나 밝은것은 질색이여서 어두한 벽틈이나 방세간 틈가른데 드리가 백사틀가도 세간에따라가는데 어떠때 일일히 잡지안흐면 번 빈대가 끼여노흐면 이 어지안습니까。그러므로 한 늘 그고생입니다。빈대는 몸시 깨뚤어서 밤잠을 못자게할뿐만 아니라 몸에자죽을 작고그러어서 부…

…까지 부어두지말고 벽에 게신을 맛춰차려 빈대잡이를합시다。

빈대는 바삭 바삭 가로 벽곳을 조화하므로 일광에 쏘여도 죽지안습니다。아조 어린것들은 예비제 직사하면 죽기는합니다。

빈대약은 여러가지 조류가만흔데 대체로 가루약보다 물약이 조흡니다。그런데 여간 애를 쓰지안코는 약이 맨뒤스구녁에까지 들어가서 알을 죽이지못합니다。

어빠게 양실(洋室)이라면 지 그저 방에 까쓰나 무슨 약을피여서죽이는 방법이잇는데 이것은 잘못하다가 도리어 까스가 바가르로 새어드러지하면 큰일나기쉬우므로 서투른 솜씨론 하기가 좀 위험하니 주의하십시요。

어빠게 뜨거운 증기로 소독하는방법이 잇는데 평로한 엇스면 뜨거운 김을빈대집 엇는데 쏘히면 고열(高熱)때문에비교적 완전히 알까지 죽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위험도적습니다。

베수건에무든 연지칠

얼굴에지도 진짜는 비누암모니아수에 잘지지만 요즘은인조색소를 쓰기때문에 그런연지를 베(麻)행커취프에 뭇처노흐면 좀체 빠지지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뭇차 곳 얼골을 바르고 뜨거운 우유를헐면되고 무더서 말너버린것은 암모니아액에다 알콜을 조금석거서 그부분에뭇처문대면 업서집니다。

먹기조코건강에조코……!

신선이먹엇다는 불로장수송엽주

햇솔닙만히나는요즘 한번해잡서보십시요

소나무는 예로부터 사시장춘의 절개잇는 나무라고해왓습니다。그래서 옛날 선인들은 이솔나무입을 먹고 몃백년식 장수를 했다고도하고 뿐만아니라지금도 건강하기 위해서 이솔나무입을 먹는 사람이 만습니다。그런데 생솔닙은 송진과『단닌산』때문에 쓰고 떫은맛이나서 아모나 먹기 어렵습니다。그러키때문에 이것을 술을해 마시면 맛이 조와서 아모나 먹을수잇게됩니다。

더구나 요즘은 소나무들이새잎이 나는데 이것으로 술을해 먹으면 건강제로써 효험이잇습니다。그런데 솔닙이 웨 불로장수하는 약이되느냐해서 그성분을 분석해보면 여러가지 몸에 유익한것이 만흐서 옛사람들의 평이한 미신이 아닌것을 알수잇습니다。

엽록소(葉綠素) 이엽록소는 빈혈증에 효력이잇고 또 동맥이 구더지는노인들에겐 혈관의 건강을 도아서 갱소년하게합니다。

비타민·씨 어것은 혈액을 깨끄시하고청설케하는 작용을합니다。

송진과단닌 이것은 소화기의 모든작용을 도와서 활발하게합니다。

대체로 이상과가티 효력이잇는 경으로 그밧게도『비타민』에이,삐,띠,이,등의 여러가지 조흔것이 만습니다。뿐만아니라 무엇보다 넘넘다 새솔닙은 어떠한 성분이 만하서 좃습니다。

빈혈이거나 몸이약한사람은 꼭 좀 해 잡숫고 원기를도울드고도 송엽주 만드는법을여기소개하겟습니다。

만드는법——할수잇는대로 새솔닙을 따다가 잘씻고 한치가량으로 잘른다음 한되드리병에절반쯤넷습니다。그담에 힌설탕반근쯤하고 술한홉하고 이것을더운물에 탑니다。

그래서 그물을 병에다 조금꿈케 너허서 막애를 꽉해서두는데 나제는 볏해내여노코 밤에는 방에다 드려노하서 한열흘가량둡니다。

그러면 송엽과 설탕이 잘석겨저서 파르스름한 송엽주가됩니다。이것을 매일 한잔식만먹으면 대단히 조흔데 그맛은 시고 달고 약간 떫은맛도 남으나 또 누구나 즐겨먹을수잇습니다。

성한계란 아러보는법

이제로부터 모든것이 상하기쉬운데 더구나 닭알가튼것은 조금이라도 상한것을 먹으면 대단히위험하므로 조금이라도 상한기운이잇거든 안먹는것이 조코 꼭버립시다。계란이 성한가 상한가는 대개겉으로보아도 짐작이나지만 아주 정확하게 알어내는법은 이럿습니다。

굴부에 소금물을 탑니다。그래가지고 거기에 계란을 집어너허보면 상한것은 둥둥뜨고새것은 미트로 가라안습니다。그리고 웬만치된것은 한절반가량 가라안게됩니다。이런것은 곳먹어야지 그냥두면 못씁니다。

계란을 한사오일가량 보존해 두려면 쌀겨에다가 뱀족한쪽을 박아서두면상하지안습니다。

이태리의 국내미화운동

이러케 파쓰는경부에선 방침 세웟습니다。그래서 거리에 세워노흔 …에 부처노흔 간판엔 죄다파르스름-한 연두빛의 장식을하고 지금까지의 비예(鄙穢)이든 명물장식은때여버리고 나라전체를미화(美化)적으로미화하기로했습니다 …에도 부드럽고 연한 초록의장식—남국이태리의 … 명물도 …

들에서꺽근꼿츨 시들잔케 가지고오는법

하이킹이나 원족을 가서 꼿을 꺽거가지고 오는분이 만습니다。그런데 들꼿은 두척 아름답기는 하지만 쉬 시드러버림으로 어떠케던지 집에까지 시들지안케 가지고 오는법을 생각해야겟습니다。

그러는데는 미리준비해가지고가면 탈지면에다 물을 흠뻑적시여가지고 꼿을 꺽근뿌리에싸맵니다。그다음엔 그것을 다시손까락가튼것을 비엿슬때 쓰는고무로 맵든 삭구를 그우에씨워두면 집으로 올때까지 솜이 마르지안코 꼿나무가 잘살수잇습니다。어디한번 시험해보십시요。

婦人見學團員募集

천중가절인 단오노리、금수강산의평양구경! 이명절 이 강산을 아니보고 무엇하리。

집안의 잔시름 걱정、씨슨듯이 이저버리고、날뜻한 경장으로 페지어가사이다。페지어가사이다。

더구나 가는길에 고려 옛 도읍이던 개성에네려 만월대、선죽교의 가지가지 명승고적을 한숨에구경하게되니 단이톨울허비해서 평생에못어들 구경이 이 어인 금상첨화요。

旅程

開城……六月一日

◇午前八時十二分京城驛發—同九時五十二分開城着 시내구경과 박물관、천마국、인삼제조공장구경하고 선죽교며만월대며……하는유서기픈 고적과 명승을 고루고루 다 차저본뒤에 풍광이명미한곳에벌려노흔 대원유회장으로 가서자미나는노리를해가며 옛날 고려의서울 송도의하로를 즐겁게보냅니다 그리고는午後六時二〇分에떠나 평양으로향합니다

平壤……六月二日

◇밤一〇時四二分평양에다어 하로밤을편히쉽니다 밝는날에는 금수강산의평양의 승지를 청류벽이니 모란봉이니 부벽누니 을밀대니 능나도니하는곳을 흥겹게 낫나치뒤저볼것입니다 그런다음에는 단오노리대운동회구경을하고 나서 맑고 잔잔한 대동강물에 배를띄워노코 어이즉을맛보면서 잠시 신선이될듯한 감개를가저봅니다 그리고는午後三時十二分평양을떠나 밤九時五〇分에 서울에닷습니다

申請=◇定員 一〇〇名 시처기한전이라도 정원이차면마감합니다。 會費 一〇圓 五月三十一日正午까지 本社事業部로 會費를내고 申請을하십시요▼申請을하신이상에는 어떠한일이잇거나 회비를찻지못하기로합니다▼어린애는 절대로 맛지안습니다

主催 朝鮮日報社

長篇小說 愚氓 【42】

朴泰遠 作 洪祐伯 畵

사랑과柳明玉 (6)

『백백교라는게, 참, 잇지。그져 또 들어 보면 뭐 나올까?』

강이 눈을 가늘게 뜨고 를 엇다。

『그야 내가 어떠케 아나? 허지만 類似종교라는건, 결국어리석은 백성들 돈 빼서먹자는거니까, 조사해보면, 다소라도 범죄사실은 물어날껄세어디 백백교 하나가? 계룡산아레를 좀 가보게。무슨교, 무슨교, 하고, 교의 종류만 수십이 넘을테니…』

더 무슨 이야기가 나오다면 학수는 그냥 일어서서 바끄로 나갈밧게 업다고 생각하엿다。

그러나, 다음에 강은,

『그럼, 언제 한번 계룡산엘 다을 일이로군……그것은그러라 하고, 그만 어데로든지 리를 또 옴겨봐야할께 아닌가? 한잔은 자네가 분명히 내엿스니……』

술을 무척 질기는 그라, 다 그랄에는 대답업시 학수는 앞장을 서서 동관을 나갓다。

그뒤를 바특이 따라가며, 유명옥은, 그의 어깨에 살밥이한개 부러 엇는것을 발견하고 떼여준다。최건영은 뒤떨어서 나오며 그모양을 보고 흥!하고 가벼웁게 코웃음을 쳣다。

그러나 학수는 그곳을 나와도 대체 어디로 가야 조흘지를 몰랏다。물론 학수으로 도 이들 두사람과 어데로 또 몰타갈 마음은 업섯다。그러타고 아무런 생각도 별로 나지 안헛다。그러나 최건영이가

『자— 우리도 어데로 가서 맥주나 먹읍시다그려。어데가조용하구?』

유명옥과 자기의 얼굴을 번갈어 보앗슬때 그는 선뜻

『아모데로나 가시죠。』

그리한 대답을 하엿다。그들과 지금 헤여저서 자기의 몸을 기피통이 곤궁속에다 두는 것에 학수는 문득 어느 위험을 느낀까닭이다。

『온, 이러케 술 조하하는친구도 처음 보겟네。내가 내든자네가 내든 하여든 그럼 나가세그려』

『그럼 어디 본정으로나 가보나요?』

유명옥이가 말하는것을

『하여든 전찻길까지 나갑시다 그려。』

다시 백백교 이야기가 나오지를 안허, 학수는 저도 모르게 가만한 한숨조차 토하엿다

찻값을 치르러 카운터로 안두호가 간 다음에 장은 최건영이를 보고 말하엿다。

『저친구가 부득 부득 한잔을 내겟다니 실례나마 가치 또 나가시지요?』

그러나, 학수가 앞질러 대답하엿다。

『저—, 우리는 잠깐 다른애기가 잇서, 오늘은 그만 실례하고시픈데요。』

『아, 뭐, 어디서 간단히 저녁이나 가치 먹읍시다그려。』

『그래도 오늘은 좀 용서를하여 주십쇼。』

그들을 보낸뒤에, 학수는 문득 자기이마에 훈훈하게 나온 식은땀을 느꼇다。손수건을 끄내여 그것을 씻스려니까, 이제까지 잠자코 안저잇던 유명옥이가, 그제서야, 근심스러운듯이학수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하엿다。

『어데, 편찬흐서요?』

『아—뇨。……우리도 그만 나가죠。』

『네。나가시죠。아이, 그사람들은 웬 술이 엇는 소리만 그리 헤에?』

그러나 그들이 장곡천정 밝은 길을 조선은행 압페까지 어를엇슬때 남대문방면에서 달려온 자동차가 카—부를 돌아서 그들의 여플지낫다。

무심코 그 안을 들여다본 학수는 순간에 눈을 크게 뜨고 다음에 얼굴을 경련시켯다。어여쁜 계집여배가 태연히 안저잇는 사나이는 백백교교주 전영호가 분명하엿다。

『만흔사람을 몰해한 구뎅이에 떨어트린 노코 자기는저러케도 태연히 계집과 혀룽하다……』

깨닷지 못하고 강렬한 의분을 그는 느꼇스나

『그리한 저어가 바루 너의 버지다!』

놀랫슬때 그는 문득 저의 전신을 스스로 때리고 치고 쥐어뜻고……그리고 시픈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웟다。

그리한 학수의 마음을 류명옥이가 알리업다。더구나 길건너에 오늘도 웅장히 자기의 길을 걷고 잇는『거리의 철학자』의 옛한 곳이 엇스랴。

부인과위생

부인병때문에대하증이 생긴것이나 속히곳치자

자궁속에병균이들어가서 부인병을알케만든것입으로 직접병화근인 자궁에帝大病院서쓰는『와세돈球』로 치료하시면단시일안에근치됩니다

멈배오른는요새에 몸시아래배가 속시고 땡기며 허리가 끈어질듯이 아푸면서 몸서리칠만큼 악취가나는 대하증이 흘너서 고통을 밧고게신여러분! 월경이 고르지못하거나 월경때면유게 되도록 몹시 알으며 눈 두통과 상기증이나고 화색이 나빠서 면민으로 선세타령으로 세월을 보내실줄밋습니다 그러면 엇던원인으로 그런증세가 생기는냐하면 자궁속조직에 병균이 들어가서 그곳을 붓고 열이나게하며 흠집을만들어서 수시고 결니게하는만큼 그곳에서 생기는 진물과 고름이 즉『대하물』이니 병화근 즉 자궁속을직접 치료해버리시면 대하증은 물론이요 지금까지에 여러분이깨닷고게시든 모든 부인병의증세는 모조리업서집니다 그런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자궁속에서 活動하고잇는 병균을 모조리 죽여야만되는데 이것을 곳치시라고 흔이먹는부인약종류—탕약, 물약환약, 가루약등을 장복하든가 흔은專門醫師가권치안는 민간에흔이잇는거문벗나는넷든약육은약한개를가지고 一週日이나쓰는것등을써서 오히려병세를 중하게하여서 비참한신세를맛치시는분이 만흥으로딱한노릇입니다 그것은 먹는약은 배속을통하야 그곳에일으기때문에 낫지안으며 넷는약이라도 유명한病院의팁상치료시험이 업는까닭에 열장열단의 폐단이잇는것이니 반드시 信用파약효가훌륭한『와세돈球』로 곳처주시사전패의기쁨을 어더주시기바랍니다

가정에서 간단히 근치된다

와세돈球는 고흔미라즘돈는 딸낭딸낭한약으로써 주무실때 약한개를 국부에너시면 그이튼날부터 몸이가볍고 병고가살아지는약입니다

약가는 十二日分…一圓廿錢 廿四日分…二圓卅錢 卅六日分二圓四十錢(病院用)百四十四球…十三圓이올시다 조선 국문으로 병세를쓰시고 우표 삼십전을선송하시면 대금인환으로도 송약해드립니다

東京市芝區通新町十三ノ一 總代理店 合名會社 河原商店 (振替東京二五〇一九)

조선문으로된『부인병자력치료서』무대진정

……저는이럿케부인병이근치되엿습니다……

와세돈球의德澤으로 活路를어든나의기쁨

(順川) 趙文愛

拜啓 此時盛夏之際에 귀사의 영창과 여러선생님들의 영영복되지안엇슬때뿐이지 다른중 척긔을양축하옴나이다 賤體으아주골되약과 혈세이와전하러 세는 조골도업습니다……三年이라는장구한동안을 조타는약로 저의중세는모치되엇습니다 은모조리조차가며 使用해보앗스나 그어느것에서도 미흡한한효험도보지못하고 더구나 비단호접으로안자(여시살엽약)를 삼때에는 동종은 더심해가고 말못할통중한념세는 점점더심해가며 제일흔내려서 그不快터함이야 이로다말할수업섯습니다……귀약을쓰기시작할때도 또속으면 모든것을단념하고죽을수밧게업다고까지 생각하고 잇섯든것이 불과六十여일에만 사람가티되엿고 여름에더심하든 惡臭를 今年여름에는 모르고지내게되엇스니 어것만으로도 날뛰는 가슴을 難禁之境이올시다 이은혜를 어떠케해야 다 가풀는지 다만하생주세주하나님과 함께 축복하여마지안습니다

탕약으로속은울분을『와세돈球』로분푸리

(醴泉) 李順伊

이무더운듯위에 奉安貴體하십니까? 선생님들의 恩德으로 多年宿症이全治되고 受胎까지하엿스니 참말고맙습니다 이제病院에가서 진찰을밧고서 몰렵다는 임신이라는것을알고나니 무엇이라고 다치하의말슴을 올릴가 하게엇습니다 그것은 너무나오래동안 약에속아오기때문에 이번에도 도힘어이겟지하는생각어 賤想外의수태의기쁨을당키때문입니다 지금까지近一年동안이나 부인병약이라고 떠드는 약(여시동경서파는사물탕, 비수한것)장복해왓스나조금도 효험이업시 대하몸은 전보다도 더욱심하여 나오고 등통을 주든지 와세돈球卅六日分으로 쓰든듯이개이고 그후계속하야 사용해왓드니 수래하는 증사를호게되엿습니다 다른약으로 오래복양해서는 와세돈球를 몰랏더니 후회도 아산을 도모하야 계속사용할計이오니 꼭卅六日分한개를보내주시기를 바라며 無하야 그에對한注意를下敎하여주심을 切望합니다

病治와受胎의 二重의기쁨을엇고서

(高城) 洪順女

…너무도 오래동안을끄고이약 저약에 속아와서 憂心하면서 도擬함 와세돈球를 써보앗든 것이(中略)어와가튼경사를 엇게되엇스니 무엇이라고 先生께 고마운께하의말슴을 해야 할런지 몰르겟습니다…下秩하여주신 새藥으로 대하물이 아조굿첫슴뿐만아니라 수족이따듯해지고 월경이순조로와퍼저서 고 월경이도업기에 중세가아니며 그러든이 三個月이넘부 즉낫지안엇든가보다하고 의사의진찰을바다보앗드니 말이 受胎의경사라고하니 어린기뿔이 또어데잇겟습니까? 그러지안어도 今年六歲먹은 女兒는 … 대하든동이라 보다기뻐에넘쳐서 엇절출을 모르는바 엽니다…

日東製藥合名會社製品

담결니는곳 아픈곳에

조선은 大陸性氣候와土質관계로 신경통과 관절통(류마치스)환자가 많읍니다 그원인으로서는 氣候에 冷溫의差가 심하며 또한飮食物의자극성 혹은 장판방의 딱딱한감이 간접원인을만들고잇읍니다 이병환은한절기면 더욱심한苦痛을밟으시게된드니 하로바삐 중환이 되시기전에 붙이면 아픔과 결니든것이 곧낫는「마—푸라스타—」로 곧치료하여주십시요

흔이 이렇한때 內服藥이나 塗擦藥 혹은 고약종류 침 溫泉療法이나 光線療法으로치료하시나 이모도가 的確한 效果를주지못하고 더구나 胃腸에고장을일으키거나 인이백이는수가많으니특히주의하여주시압

붙이면 곧 낫는藥

아픈곳 담결니는곳 수시는곳에붙이시면 상쾌한기분이 돕면서 그렇게심하든苦痛이 곧개이는약이오니 習慣性이되는법이없이 藥效는 二十四時間이나 持續的으로發揮되야 충분한效果를얻을수있으며 病根原에까지作用하는약입니다 즉 피부의氣孔을통하야 皮下筋肉과 혈관속에침투되어서 細胞組織을更新식혀주고 피의순환을왕성케 만들어줌으로 그렇게심하든苦痛도 곧개이고 병근원에작용되야 根本的으로 낫게하여주는약입니다

신경통 근육통 견비중 관절통 담결니는곳에특효잇는本劑의시용약을本舖와약방에서진정합니다

廿錢 卅錢 五十錢 一圓 全道藥房에잇읍니다

發賣元 大木合名會社 東京神田鍛冶町(振替東京五四〇)

마—푸라스타—

若草劇 五月二十四日より七日間

大朝ニユース	7·00	3·40	
風車	7·10	3·50	12·45
大每ニユース	8·25	5·05	2·00
新婚道中記	8·35	5·15	2·10

東寶映畫、明日待子、黑川彌太郎 主演 (1)
…イリイケ、…トンラグ主演 (2)

松竹マネキン 明治座

5月23日ヨリ29日マデ上映時間表

ニュース	11·15—11·59 ‖ 2·57—3·41 ‖ 7·00—7·44
皇軍正義の突擊 桑野通子主演 我が心の誓い メトロ社超特作	12·04—1·12 ‖ 3·46—4·54 ‖ 7·49—8·57
戰友	1·17—2·42 ‖ 4·59—6·24 ‖ 9·02—10·2?

次週豫告 永遠の戰歌(皇軍大捷の歌)十三番目の椅子

日活 黃金座

5月26日ヨリヨリ5月28日マデ

ニュース	11·00	2·35	6·40
日活・人生劇場	11·10	2·45	7·00
東和商事提供 ワルツ合戰	1·05	4·40	8·55

全館開放 30錢均一

第一劇場

五月廿六日낮부터四日間大公開 最大巨篇豪華週間 每日晝夜二回公演 一回十二時、二回六時、三回七時半大衆料金階上廿錢階下十錢

英國고―몬포리데合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戰ふ民族 原作 아—사리발氏 監督 밀로—스마—氏 主演 리챠—드아―렌氏

컬럼비아社特作全發聲日本版 瞬間의怪盜 監督 D·로스네다—氏 主演 바리맛케이孃 다그라스몽고메리

松竹大船超特作全發聲 現代名畫 あばれもの 原作 北村小松氏 監督 佐佐木康氏 主演 德大寺伸 吉川滿子 三宅邦子

新富座

◇五月二十六日부터三日間!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三大特作名畫上映週間 ◇유니바살超特作全發聲版!! 至中大冒險大活劇 뷔―드·뷔―부氏 監督作品 世界航空戰 前中後篇同時上映大會 존·킹크 氏 主演 진·구지―스孃 主演

◇世界의交通路를開拓하는飛行機는突然蒙古奧地에消息을끈는다 果然엇지나될는지!!

次週豫告!! テムプル嬢の…ツド大通り 豫告!! 漢江=肉彈山岳戰=人情=…의人氣者銀河에흐르는…熱=激襲=海の巨人…人生

京城府本町五ノ七七番 新富座

三陟行草(十) 陟北壽眞記

崔益翰

鄕土文化를 차저서 第三 三陟班篇 (58)

北三面은 三陟名勝의 過半을 一面이 獨占하고잇다 海岸의第一勝地로 泳岩을들수잇다 龍淵奇岩의絕勝으로서 泳岩이라고하나 [illegible] 그名稱이 俚俗하다하야 凌波臺라고 改稱하고 「萬丈之濤瀾, 湧之萬石, 相甲乙, 而奇則過之」라하얏스니 이것은 그嵯峨列立한 石鏡岩과 [illegible]岩의 奇絕卓拔함을 가르친것이다。

高麗恭愍王朝에 眞逸君沈東老는 明道山下에 卜居하야 海上岩石間에 小亭을세우고 海岩亭이라稱하얏스니 亦是 奇岩凌波의絕景을 取하얏든것이며 亭은 五百年來 그子孫의 手으로 지금까지 傳하고잇다 그래서 士人은 泳岩을 凌波埼, 또는 海岩亭이라고도 부른다。

海岩亭의 西北八里許에 名刹大伽藍이 [illegible] [illegible]의 世居地이고 [illegible]의 生來地이다 數百年間 [illegible]文化의 [illegible]的地位는 南의 洪氏名村인 [illegible]里와 서로 [illegible]하얏든것이나 지금은 [illegible]의 바람에 村[illegible]은 아주 [illegible]되어버렷다。

面所在地인 [illegible]市街를 지나고 二十里를 沿溪行하야 三和里의 三和寺를 차젓다 寺는 新羅梵日大師所創으로 高麗時에는 三十六宗派中 一宗派의宗寺이엇든것인데 [illegible]火災로서 지금은 寺舍가 보잘것업고 다만 [illegible]에 [illegible]立한 조금만한石塔하나가 寺의 過去를 [illegible]이다。 朴住持의 好意로서 寺[illegible]古物인 [illegible]經一冊을 [illegible]하게되얏다。

寺西二里許에 絕勝한水石으로서 仙[illegible]의稱을어든 武陵溪가 잇다 溪面에 約五百坪가 [illegible] 「武陵仙[illegible]。中[illegible]」 [illegible] 玉[illegible]士辛未」 十大大字를 三段[illegible]列로 刻書하얏스니 [illegible] 十年前 [illegible]月大旱時에 [illegible]石一部가 [illegible]然 [illegible]하면서 [illegible]이 사람을 [illegible]게한同時에 武陵의 武字[illegible]가 [illegible]去되얏고 또 [illegible]百年間 [illegible]의 沙石[illegible]로 因하야 字[illegible]全部가 거의[illegible]되려한다。

武陵溪에서 沿溪行하면 中臺寺古址後에 石壁의[illegible]이잇고 [illegible]이잇스니 모두 奇[illegible]으로서 有名하며 [illegible]西에는 古代어느王의 [illegible]址가잇다。

다시 三和寺에와서 [illegible]山[illegible]너머서 十里許에잇는 [illegible]老面天恩寺에 이르럿다。 天恩寺도 亦是新羅梵日大師所創이라하나 何[illegible]間 高麗時에 [illegible]

[illegible]

(三陟篇終)

學藝

六月創作一人一評(一) 生에對한情熱로서의文學

兪鎭午

鄭飛石氏의『憧憬』評이 내차례가된것은 나에게는 두가지로 기쁜일이엇다。한가지는 그의이름을 알고잇스면서 作品은對하지못한 나에게 그

機|會를 提供하엿슴이오 한가지는 이러케해 처음으로對한 氏의作品이 豫想以上의好作이엇스므로써다。

이런題材의 角度에서 이런種氏의 作品을본다면 이곳에서 取扱된 죽엄도 압흔사람이 어떠케해서든 살어보랴고 生에對한 끈을수업는愛着에 몸부림치다가 그것이 絕望임을깨닷자 그生에의 愛着이 藝術에의情熱로 變形된다는 테ㅣ마는 역시 조금도 새로운性質의것은 아니다。 그러나 『憧憬』은 그테ㅣ마의 日常性에도 不拘하고 이상스레도 讀者에게 그日常性에對한 嫌惡를 이르키지안는다。그것은 웬일인가。테ㅣ마의 日常性은 반듯이 그것만으로서 作品을 卑俗하게 맨드는것이아니라 대개는 作者의 人生態度의 卑俗을 同伴하는 것이라는것을 이곳에서

想|起하여야한다。 이에 反하야『憧憬』은 純粹한 誠實로써 一貫되어잇는 것이다。 그것이 이作品을 失敗에서 훌륭하게 救해낸것이다。

『憧憬』을 읽으면서 나는 故直木三十五氏가 死의直前에『純粹小說』이란 패플렛을 發表한『私』(?)란든가하는 作品을 聯想하지안흘수업섯다。이두作品은 勿論 全然 別個의것이나 사람이 絕望的인 病苦와 싸우는것을 取扱한點과 主人公이 小說家라는點에잇서서는 똑가튼것인데 그藝術的價値와 讀者에게주는 効果에잇서서는 正反對의것이다。 그것은 結局 上記한『純粹한誠實』의 有無에서오는 差異다。 直木氏의 境遇에잇서서도主人公은 絕望的인病苦와싸워가며 自己의 生命을 깍거내는듯이創作에 熱中하는것인데 讀者는 그가 무슨 必要로 그러케 創作을쓰는것인지 알수가업슴에 제아모리 絕代의 傑作을 쓸려할지라도 그따위 짓은 그만두고 하로라도 더살다죽기를 바라게된다。그것은結局 主人公이

一|[illegible]의 自己陶醉的英雄心理로부터『이것봐라 나는 이러케 죽엄을 무서워하지안코 藝術에精進한다』는 類의 偏狹의情熱──虛榮에 갈때기때문이다。이에反해서『憧憬』에 잇서서는 主人公택규는 純粹한 넘우나純粹한 誠實의所有者이며 아름답고 謙遜한 靈魂의 主人이것이다。택규는 失戀의 괴로움과 絕望된 肉體를 안고재 밤을새워『원고지를 한간 한간 메워가는』것이나 決코 그것은 죽엄을 代價로名聲을 求하는 그러한 賤俗한──一見『藝術家的』이나──動機로부터가 아니라 도리혀 生을 欲求하고 生을禮讚하는 至極히淳朴率直한 人間自然의 流露의結果다。直木氏의境遇에는 藝術은 虛榮이오生은犧牲이엇다 反하야鄭氏에잇서서는 生은 眞摯한것 根源的인것이오 藝術은 그것의延長 그것의 象徵 그것의 憧憬인것이다。그러키때문에 이곳에는 서望意味의 悲觀이 잇고 절망純粹한 藝術이잇는것이다 이말은 一見自家撞着의 命題갓다。 그러나 누구보다도生을肯定하고

欲|求하면서『삶의생명을』肯定하지고 예술의생명을 찾지아니치못하는곳에 悲劇이잇고 藝術이잇지안코 무엇인가

『憧憬』의 根本的性格을 밝히노라고 너무紙數를 消費해 버렸에 細部的인 餘裕가업서젓스므로 以下簡單히 몃가지 所感을 적어두는수밧게업다。

택규의悲劇을 살님에 잇서서 『삶』과『힘』의象徵으로서의『인끈』을어느때에나 택규에게配置한것은 成功이라고본다。더구나 『인끈』을 택규의敵으로만들므로써 通俗的인手法에 빠지지안코 도리혀 택규의保護者로써 登場시킨것은 作者의 高度의藝術感을말하고잇다。

택규의性格과心理를 一面化하지안코 嫌惡와 愛情이라는 矛盾되는 感情을 同時에 經驗시킨것도 택규의人物에 리알리티를 준데잇서서 絕對必要한條件이다。이것도 惡人은 惡하게만 善人은 善하게만 그릴줄아는 다른作家에게는 模範이 되어도 可하다。

택규에게 失戀의쓰라림을주고 自己自身도 人生에 失敗한『순희』의

存|在는 作者는相當히 힘을 드리고잇는모양이나 結局은『인끈』과同列의存在로 그 性格의鮮明한程度에잇서서는 차라리『인끈』에 밋지못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作品의缺點이라는이보다는 차리리 焦點을한곳에로 集中하여야하는 短篇小說의特質에서오는 不可避의結果라고할것이다。

그러나 순희가 나타나는 場面場面의 描寫에는非常히優秀한곳이만타。그中에도 택규의喀血에 순수건을 갓다대다못해 힌치마자락을 펼처드는光景은 가장恍惚한대문이다 택규를中心으로한 순희와인끈의 事件的性格的葛藤은 人間性에의 作者의 기픈洞察을 말하고잇다。순희가 몰래 갓다노흔것 그것을 알리지안코 제가사와닷고내노흔 인끈 그런事情을 알면서도 물으는척하고잇다가 꼿업는 아침에 『인끈아 오늘아침은 꼿업니』 『꼿이것든가저오려구나』하는택규──어쨋든『憧憬』의作者鄭氏는決코凡俗의作家가아니다。그의

感|覺은 매르고 날카롭고 그의感은 確實하다。

다만 한가지 순희가 밤에몰내 택규집바깟까지와서 때 때마침방안에서 순희에對한 問答이 들녀나오는것은 作者의 千慮一失이다。순희에對한問答이 잇스랴면 벌서나제 순희가 단녀간即後에잇섯슬것이오 그러케 밤중에 비로소問答이잇게하랴면 그것에는 반듯이 理由가잇슬것이니 作家는 그것을說明할義務가잇는것이다。그러지안코는 이場面은 通俗小說의手法에墮하는것이다。

學藝消息

李馬銅氏個人展 그間 沈默을 지키고잇든 李馬銅氏는 五十餘點의 近作을 가지고 六月一日부터 五日까지 和信七階갸라리에서 個人展覽會를연다한다

(小品) 고양이 (三)

朴魯甲

어떤날 아마 저녁 새떼쯤 되엇스리랑 집뒤 드도 큰 학교 마당에는 꽤만흔 사람 들이 모엿다。

호젓지근 한 여롬 날을 움속가튼 집속에서 견디다 못하야 바람을 쐬러온것일 것이다。

앞집 연해 앞집 뒷집연해 뒷집들을 연불 달린 서울 가난뱅이 동네지붕들을 눈 아래 나려다 보아가며 별로[illegible]할것 엄는이야기가 한창에 벌나졋엇다。

이즈음에 누가 갑자기 손을들어 아래편 지붕모지리 한쪽을 가르치며 웨첫다。

『저것 저것!저러단 잡히지 잡혀!』

모든 사람들은 이사내이가 가르치는바로 눈살을 쏘앗다。

고양이 한놈이 묵은 암닭 한마리를 쫓는 판이엇다。

이편 날흔 개와집 지붕에서 [illegible]인 닭은 활개를 치며 청하와 청하가 서로 맛닷흔 초가집 지붕으로 다[illegible]첫다。 고양이 놈도 물론 초가집 지붕으로 쫓차갓다 닭은 다시 앞집 지붕으로 쫓겻다。 고양이 놈은 물론 노치안코 쫓첫다。

닭과 고양이의 거리는 점점 줄어들엇다。

도한집을 채못가서 닭은 고양이 놈에게 잡히고 말엇다。닭과 고양이가 한덩어리가 된뒤에 고양이 놈은 닭과 한가지로 자최를 갈추고말엇다。

『옛다 그놈 잔치 잘햇다』

이러케 말끄틀 맺든 사람이 대부분이엇다。

이야말로 서울 지붕이아니요 시골 지붕이엇든들 닭은 결국 고양이에게 잡히지 아헛스리라고 생각을해보앗다。

닭이란 놈 처럼 어리석은놈은 원래 적을줄 안다。닭이란 놈이 고양이 한테 죽는것은 오히려 크럴듯한일이라고할지도 모른다。

고양이하고 쥐하고 대해 말하면 쥐에 [illegible] 고양이에 [illegible] 거제 먹는 [illegible]으로 아는데 닭이란 놈은 이러한데도 죽는 것을 어떠케 하느냐는 말이다。

쥐가 닭을 죽이는 법은 닭의 발등을 긁거 먹는것인데 부리로 한번만 쳐어도 도망할 쥐란놈한테 발등을 빼앗기고 죽는 다는 것은 사람으로 써는 상상도할수 업슬만큼 딱한 일이라고 하겟지!

사람이 딱 하다건 닭이딱하건 쥐란놈이 아모리 꾀가 비상 하기로니 닭이란 놈이 영리하지 못한것만은 사실일것이다。

이와가티 영리하지 못한 놈이 [illegible] 서울 지붕에서 미끄러 뛰어 나리면 사람에게 구원을 바더 살수 잇슬것을 깨우치기를 바라다는것은 도저히 어려운 일일것이다。

그러나 외따로 떠러진 시골 지붕위친대 닭이란 놈은 이때 그무런 날개로구태여 멀리 떠러진 동리지붕을 갈수도업고 별수업시 지붕아래로 떠러저 구원을 밧게 될것이엇다。

그러나 그러케 생각은하여 보앗지만 소용은 업는 일이엿다。

이 닭을차간 고양이놈이 꼭 우리방 남창바게 사는 그놈이란것을 나는 밋고시펏다。

그놈의 얼골모습도 흡사할뿐아니라 그놈이 닭을차간 그지붕이 우리집지붕에서 몃지붕 안걸러잇는것을 보매든 이엿다。

만일 이닭을 일허버린사람이 고근처에살고 그것을 고양이가 무러간줄 알진대 큰는 만드시 나의방 남창 밝게 사는고양이 [illegible]놈이일 알것이다。

그러나 아직것 닭의원수를 가프려 [illegible]놈을 차저온 사람을 보지못하엿다。

뒷골목 ◇平壤雜記帖◇ (二)

金南天

▲冷麵

『冷麵』이란말에 『平壤』이부터서『平壤冷麵』이라야 비로소 어울리는 格에맛는말이 되든키 冷麵은 平壤에잇서서 代表的인음식이다。언제부터 이冷麵이 平壤에 흘러왓스며 언제부터 冷麵이 平安道사람의입에 가장만히嗜好에맛는 음식물이되엿는지는 나가튼 無識쟁이에게는 알수도업고 또 알려고도아니한다。

어렷슬때 우리가 冷麵을 국수라하야 비로소 입에대게된時日을 記憶 하는 平安道사람은 極히 드물것이다 나도 그中의한사람이다 밥보다도 아니 쌀로만든음식물보다도 일르게 나는 이 국수맛을 알엇슬는지도 모른다 어머니의등에 업히어서 어른들의 冷麵그릇에서 여나믄오리를 끈허서 이가 서너개 나나 마나한 입으로 모밀로만든 이음식물을 바다삼킨것이 아마도 내가 冷麵을 입에대여 본처음일것이다。젓먹다 뿜은 적은입으로 이 맥근거리는 국수오리를 갈풀고 쫄쫄 빨러올리던記憶이 잇는지업는지 가물 가물하다。누가 마실을오던가 한때에 點心이나 밤참에 반드시이 국수를 먹던것을 나는 겨우記憶할따름이다。잔치날 ──그리므로 約婚하고 편지부치는날에서부터 禮物보내는날 장가가는날 며누리 다려오는날 시집가[illegible] 국수를먹고 더운구들에서 장을 자고나면 얼골이부석부석 붓고 목이 케케하야 기침이나는것도 事實이다。[illegible] 인지도 모른다。[illegible] 利尿劑로된다。[illegible] 豚肉이나 고추나 파나 마늘이 만히드는것은 끄리지만 冷麵먹은뒤에 더운 국수물을 [illegible] 한사발식 徐徐히마시고 안젓든것은 이탓이다。[illegible] 이것을먹은이들의 効果는 어떠튼 利尿劑로도 으뜸간다고한다。

冷麵은 勿論모밀로만든다。모밀로 만든국수는 사려놋코 十餘分만지나면 자리를 잡는다。시간[illegible] 散散히 끈허진다。[illegible]外에는 純粹한모밀로 만드는국수는 極히稀少하다。국수빨이 질기고 끈허지지 안는것은 소ㅣ다나 가다꾸리가루를 석는탓이라한다。서울의 골목마다잇는 마른사리국수 또는 結婚式場에서주는 국수오리속에 몃퍼ㅣ센트의 모밀가루가 들엇는지는 우리들의斷言할수업는바다。나는 서울[illegible]

[illegible]

本報當選作家短篇리레ー 晴曇(十三)

車自鳴 作 崔根培 畫

『이제는 비가오대도 소용없겟구먼요?』

『그럿지! 지금 암만 물이만해도 모가 잇서야지……이제라도 오기만한다면 밀밥이나 무러를 도리비게!』

『그러나 어디 밀밥이나마 심으게 비가 올것갓지 안흐테요』

만석이는 설이 땡한듯이 거픈 생각에 잠겨 [illegible] 한다。

『이번가튼이 기미면 가을보다 또 더 설한데……』

『그래요! 신농을 봐도 근년에 볼지못하든 한재라고 해텐데요──서선보다도 남북선이 더 심한 모양입니다』

또 한참 묵묵히 걸어가고 잇섯다。 때마침 맛은편에서 [illegible]시두렁이에 멕고모자를 쓴 사람이 [illegible]질을하며 이쪽으로 오고잇다 [illegible]의 배거덕이엿다

게덕이뒤로는 [illegible]에 두사람의 작인이 따라오고잇다。게덕이도 논을 둘러보러 나와다든듯 만석이와 지내치다가 서로 인사를한다。

『어렵히 나오섯습니다 어떠운데……』

『응 유상 용이나와주만요……논을둘러보리왓소?』

『네!』

『흥!둘보나마나 금년은 벼한쏠거리도못거두겟소──유상도안됏는데 [illegible] 처혀부런 이러케돼서……』

게덕이는 가장 만석이를 동정하는체하면서도 술그머니 비웃고 점잔을 뺄으며지나간다。

게덕이의 [illegible] 장과 차린 [illegible] 치서는 속으로 『우호호한것!제가뭐이게……』하고 비웃기까지햇다。

『더 보나마나 금년한 농사니 흘어가세!』

유주장은 [illegible] 흥보겟타는듯시 은근히도 도려서머 말햇다。만석이와 더불어말로도 아무말업시 유구장을 바랏본다。

『요사이 장사는 재미가 엇더신가?』

유구장이 한거름 주춤하며 만석이에게 못는다。

『장사는 역시 가다니기 기어지요!』

만석이는 시큰없이 대답하며 것는다。모다들 묵묵히 것는데 시 말을보하고 안젓다。유조시 허두에 용기를어든 유주장이뒤니여 청을댄다

『자네도 [illegible] 종중에대여기만 불찰이지……약조한 금년도지는 자네명 [illegible]…고 내년으로 미루어주게!그러면 금융조합 별리만은 우리손으로 물어놀테니……』

만석이는 유구장이 말한후에도 한참이나 그냥안젓더니 겨우 대답한다

『아직은 확실한 대답을 할수업스니 추수나 끗마고 상의하도록 합시다』

이말을 뒤니여 유조시는

『우리 조중을 구할려고 이양 자네가 손을빗것스니 이자말대로해주게!』

하고 꼭 따저 부탁한다。

만석이는 그래도 확실한 대답을 하지안는다。

『조중시구가 모두 자네 덕만 바라보고 삶지안나……하니 기회생각하여 잘 처리하도록 해주게……』

『하여간 그것은 가을에이나 그때 말하지요……나도 여러가지로 생각중입니다』

유구장은 지금 암만 청하대야 만석이게서 시원한 대답을 못드를것을 깨닷고 [illegible]

유주장밧은 눈물이 [illegible] 멀리 앞서가는 게덕이를 볼때마다 만석이에게 [illegible] 맛치고 망서리면서도 [illegible] 못내고 주저하는동안 동리까지 들어왓다。

유주장은 사람으로 도리화서로 [illegible] 마조하였다가 자마 자기는 만석이에게 말을붓하게되는듯이 유조시를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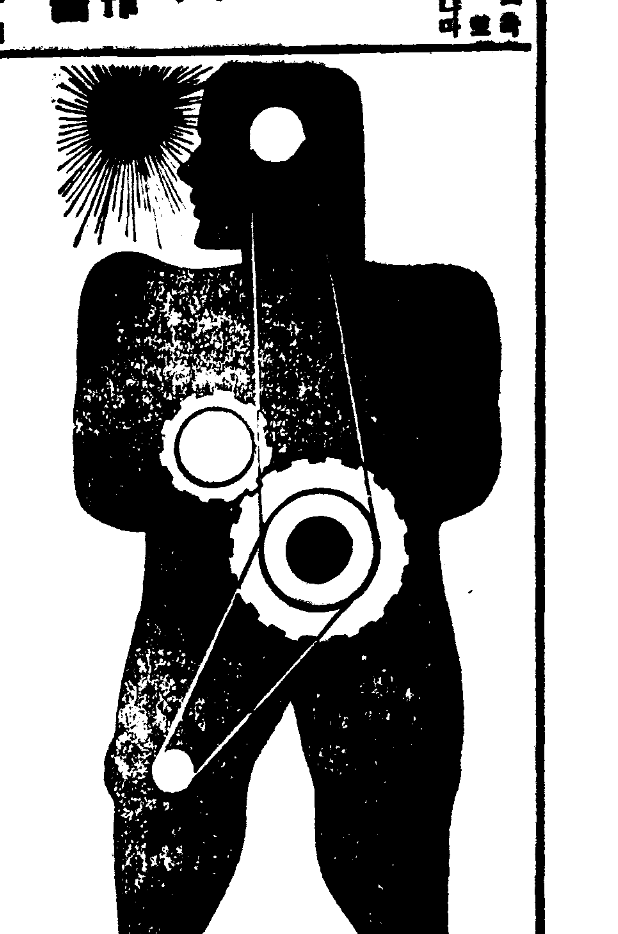
『여보게서 우리가 헤오는말을 일글하시죠!』

하며 눈짓으로 말하기를 재촉한다。유조시도 말하거가 [illegible] 거북한듯시 헛기침을 여면하며 너 입을연다。

『집안끼리니 허물업시 말하겟네……만석이도 보다시피 금년일은 이제는 하늘이 망치놧지안치나……그러니 보니까 자네게서 금년 도지는 어떠케하는게 조켓나?』

『……』

유조시말에 만석이는 [illegible]



萬病通治가되야壽命을二倍로만드는

生命元素가發見되엇다

神仙不老草를찾는여러분! 세계의약학계에서 공통승인된 生命元素 즉 有機性옥도로 不老長生케되는이야기

어느분을 물론하고 무병하게 오래살어서 충분한 幸福과 享樂의 生活을 맛보며 일평생을 의의잇게 지내자는 희망이 공통된 사람의 인정일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生物이 그자신의생명의 존속을위하야 싸우는노력과 그심정은 참으로 굿세인것입니다 그리하야 그노력 때 본능을 깨닷게도시는때에는 健康의 [illegible]도 하실수잇겟스며 자기자신의 심장도 근본적으로 뜨더고칠수잇슬것입니다

◇

그러나 살아나가자는 生命力만가지고는 사람들만은 참된 근원을 充分하게 발휘치 못하게됩니다 즉우리들의 육체속에는 여러가지의 기관॥

◇

그리하야 內分泌作用(호르몬)

◇

『네오스・에ー』가 어째서 生命元素가 되며 神仙不老草와 가튼가 하는 [illegible]

『네오스・에ー』는 神仙不老草藥이다

[illegible]

血汗으로生命線을도로차즌 살은體驗記

이기쁨을혼자감취둘수업서 病床의여러분께드림

長野 島田文子

저는 ××大學附屬病院에 잇섯든 一看護婦입니다 二十一歲의여름 『乾性肋膜炎』 『肺尖가다루』에걸려 前途多望하든저는 모든것을 斷念하고 歸鄕하엿습니다 病狀은 말도못할정도로 사리지는것가티 『대간』하며 頭痛 呼吸困難 不眠 食慾不進 그리고 微熱 저녁에는 바늘로 찔르는듯한 가슴의아픔……아ー얼마나고생햇섯든가 病院에잇섯슬때의 看護法과 배운知識 參考書 主治醫의 指導에따러서 消極的인 療養을 一年이나 계속햇스나 아모보람도업섯습니다 天命을 기다릴수밧게업섯습니다 여름도 다지난 가을바람찬때에 왓습니다 『나의救援』이것이 그 일홈은 네・오스에ー입니다 病床을 慰問온 從兄이 가저다 주고간것입니다 服用後二週日째부터는 기침이 적어지고 食慾이 막나는데에는 먼저어머님이 놀나시엇스니다 五週日로 呼吸도편하고 過食을 주의까지해주섯습니다 熱이내리며 가슴아픈것이가라안즐때의기쁨은 오즉 病者만이 맛볼수잇는게지요 三個月로 그리케重症이든 것이 醫師의診斷으로 全快를 밋게되엿습니다

肺結核을克服하고 다시敎壇에슴

沙里院 鄭俊海

一月頃 감기가드러 좀無理하엿든結果 肺浸潤을 이르키어 [illegible] 咳嗽 喀痰 發熱 動悸 가슴의壓迫을感함 단연敎職을사하고 海州사나[illegible]療養에臥하엿스나 一進一退約一年을 不安과초조로 지냇습니다 [illegible] 藥에진절머리가나서 지금까지 絕對安靜하고잇든몸으로 긴旅行을敢行하엿습니다 多幸히 큰일업시 [illegible] 自然療法을하엿습니다 좀小康은어덧스나 [illegible] 가슴의압박이 업서지지안는것을 걱정하든中 母校校長이 『네오스・에이』를권하기에 [illegible] [illegible] 五個月만에 自覺症狀이 全部업서져 올해부터 다시敎職에잇게되엇습니다 [illegible]

心氣亢進輕快 ─집안에無病人─

咸興 俞沂鎭

人間이란 妙한것이니 몸이편찬을때도 病名이診斷되기前은그것이 비록惡性이라도 決코그러치안라고 조깨도 생각하며 一단病名을 확실이일면 지금까지 몰낫든데까지도 몸시아퍼지는것입니다 저도그랫슴니다 心氣亢進이라고 診斷바닷슬때부터 一年前 心臟部가 氣分이나빳고 脈搏分時八十五 [illegible] [illegible]

경진대무 [illegible] 『絕對健康法』 [illegible] アルス[illegible]

네오스・에ー 약가 [illegible] 一〇〇粒 四圓三十錢 [illegible] 一圓八十五錢 [illegible]

大人氣!講談社の繪本 新しく出た四冊

繪本が友なら親は安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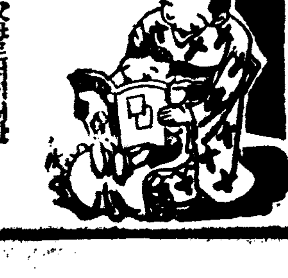
반드시훌륭한애기가됩니다

講談社の繪本 空中戰畫報 (五十錢送料)

講談社の繪本 孝子萬壽姬 (五十錢送料)

講談社の繪本 名作童話 こがね丸 本田庄太郎 畫 (五十錢送料)

講談社の繪本 傑作漫畫大會 (五十錢送料)



お子樣方の將來の爲めに この繪本をお與へ下さい

東京小石川 大日本雄辯會講談社

砂防十五年計畫 進行成績頗良好
昨年度二萬町步完了

朝鮮에잇서의 最初의砂防工事는 明治四十年 韓國時代에自雲山의五町步 試驗砂防이其시작으로서 水源涵養의目的과 旱害水害로因한 窮民의救濟事業으로서 大正六年부터 同十一年에이르기까지 忠北忠南全北慶北四道에亘하야 局部的應急的인 砂防工事를實行하여왓다

그리든것이 昭和十一年十月朝鮮産業經濟調査會 諮問答申의國土保安水源涵養等 公益上의使命達成을 期하는同時에 林野의完全한 利用을促進키爲하야 各道適切한對策을 樹立한中 全朝鮮에二十三萬町步에達하는 禿山에對하야 昭和十二年度부터 十五個年計畫으로 砂防을完了할 豫定인바 砂防工事는 禿山의狀態如何에依하야 工費의多額을要하는것은 國費로하고 其他工費用의多少及 現地狀況에依하야道費又는 工事費의一部를 民間所有者에게 負擔케하야 實行하는中이며 昨年度는 豫定대로二萬町步의砂防工事를 完了하야 好成績을내고잇다한다

完州郡農會 蠶業指導策

【全北支社發】完州郡農會蠶業係에서는 管內養蠶者들에게 生産額의增殖을 圖하는同時에 蠶業指導方法을樹立하야 一般의注意를喚起하기로되엿다

一、蠶木桑田의肥培管理
◆郡農會에서바든 補助肥料硫安을 六月一日 一齊施用할것
◆第二回追肥로서 八月下旬桑園一本에對하야 人糞尿三合以上用
二、秋期蠶種肥一齊施用할것
三、上簇改善 改良蔟使用奬勵
◆蠶拔實行(上簇後十八時間以內實行)
四、繭絲採取販賣
五、繭絲共同販賣受附等
六、桑田耕作會開催等

林檎特割廢止
時局關係로考慮
農林局 千田技師談

朝鮮産林檎의 時局運賃廢止問題其他林檎市場을 調査키爲하야 東上中인 千田農林局技師는 廿六日 歸任하야 如左히말한다

朝鮮林檎의時局運賃問題에對하야는 鐵道當局과協議하여보앗더니 相對便의意見으로서는 時局關係로 貨車가不足하고 또 內地에서 時局을하는者 三百輛이나 貨車가 不足한이때라 時局까지하야 貨物輸送에努力할必要를 認定치안는다고한다 그러나 朝鮮의要望을 一應하야 今後에도惡影響을 미치게할바가업는限에서는 생각하지안는 關係으로 目下關係當局間에서 協議研究中이므로 自己本位의 생각을 滿者는 時局을하고 時局關係를認識하여주기바라다

遠洋漁場探險船
北漢山丸竣工式終了
不遠黃海에處女航行

【仁川】遠洋의 漁場을 探險하고 水産資源開發의 重大使命을띄고 建造된 京畿道水産試驗場의 北漢山丸(七〇噸)은 去二十六日 仁川港에서 盛大히竣工式을 終了하엿는데 그배는오는六月初旬頃에 黃海와支那方面을 向하야 大漁場을 探險하기로 되엿는데 그배의 活躍은水産界에서 多大한期待를 갓게되엿다

肥肉牛飼養코저
三歲以下牡牛를去勢

【楊州】楊州郡農會에서는 戰時體制下에 畜牛의增殖을 圖謀하는同時에 牝牛의濫殺을防止하기爲하야 牡牛三歲以下의것을 去勢하야 肥肉牛를맨드러 將來에는 이를屠殺키로되엿는데 今春의去勢한頭數만 百四十五頭나된다 그런데 今後이를積極的으로 奬勵하기爲하야 一頭去勢에 五圓式補助金까지 支給한다는데 萬一死亡하는境遇에는 共濟法에依하야 二歲以下는 十八圓 四歲以下는 三十五圓의 補償까지엿다는데 今春去勢한 牡牛는 一四의死亡도업고 成績이 大端優良하야 農家의期待가만타

雲峯煙草耕作組合
肥料、農具共購

【南原】雲峰煙草耕作組合에서의 組合員의 申込에依한 煙草耕作用肥料、農具等 共同購入斡旋은 今年에도 例年과가티 行하게되엿는데 共購의額數는三、四九八圓二〇錢으로 在實粕 硫安等肥料三〇、三七六瓩에對한代金三、〇八六圓은 組合에서 日步三錢利로 煙草耕作資金貸付金으로充當하게되고 移植縄、如露、鍬等農具에對한 代金四一二圓二〇錢은 組合에서 一時立替해주기로되엿다

寧邊各製絲工場
原料不足으로休業

【寧邊】寧邊蠶業組合에서는 每年蠶繭共同購入을 實行하야 一般製絲家에 原料를配給하야오는데 昨年度에는 春秋蠶繭을 合하야 二萬二千餘石을 共同購入하엿스며 따라서 各製絲工場은 不得已休業을 不免케되엿는데 寧邊産業組合當局에서는 今春蠶繭共同購入時期는 尙今數個月이 남어잇스므로 이數個月間에 各製絲工場에對한 原料配給問題에對하야 銳意其對策을 講究中이라한다 이로보아 寧邊의 製絲業이 興旺하여갈을 如實이 나타내이고잇다

扶安螟虫驅除

【全北支社發】全北道扶安郡에서는 五月二十三日부터 郡內地主耕作者多數를同郡農會議室에招請하야 二化螟虫驅除組合을 結成하고 螟虫驅除에 全力을다하기로하엿는데 小麥收穫을利用하야 事業의餘暇를利用하야 採卵을하도록 考慮中이라고한다

咸南牛聲價益高
註文各地로부터遝至

【咸南支社發】昭和十一年以來咸南牛가 滿洲方面으로 耕牛로輸出된것이 八百餘頭나되는대 이번에또 牡丹江鐵道局으로부터自警團青年部農牛로서 五十四頭를 보내달나는注文이왓다

春蠶掃立十二萬枚

【慶北支社發】慶北道今年春蠶掃立은 去年에比하야 조곰增加하야 十二萬五千枚인데 그掃立狀況을보면 去六日玄風面을 爲始하야 十五日까지에는 北部에잇는奉化等地까지 全部完了하엿는데 慶州郡內에서는 벌써三眠을 지냇다는驚異的成功을어덧다 그런데 今年度春蠶狀況은 日氣順調와 適當한降雨로 말미아마매우順調로 病虫害도 全然發生치 안허서 大豊作이豫想된다고한다

山林課長會議
今月末開催
赤松取扱協議

全朝鮮道山林課長會議는 豫定과가티 今月三十日부터 六日間 總督府第三會議室에서 開催하리라는바 右會議에서는 時局에 對應하야 建築材와펄푸原料等의 用材林의 造成에關한協議를 비롯하야 朝鮮山林에잇서서 가장當面한 重要問題는 全朝鮮各山林中의 松林은 赤松이 其大部分을占하는데 이赤松은 建築材로도 不適하고 펄푸原料도아니되여燃料用밧게아니되므로 不過十年에 採伐하면 砂防工事를要하게되는 이赤松林의 取扱問題其他現下의 山林政策에對하야 討議研究할豫定이라한다

새로登場한副業
緬羊이란어떤것
❶ 飼育管理方法如何

仔羊은 十日쯤經過하면 漸次飼料를 먹기始作함으로 少量의消化하기쉬운 濃厚飼料를 가리주고 燕麥又는麩과如한것을주어 漸次로 增量하는 同時에 生草를增加하야 生後百日로 부터 百二十日에는 母乳를 먹지 안허도 조타 母羊에 언제까지 던지 부치어두면 母羊의榮養恢復이 너무느저 翌年春의 生産에支障이 생긴다

離乳 仔羊이 母乳로부터 떠러지게되는것을 離乳라고하는데 이는前述한바와如히 仔羊의榮養狀態에依하야 生後百日로부터百二十日쯤사이에 離乳하는때 母乳를떼난 仔羊은 暫時發育이如意치못함으로 이때에는 消化하기쉬운 飼料를 給與하야 그發育이 停止되지안케하도록 注意할것이다

母羊은 離乳後에도 젓이 나오는것임으로 乳房의 腫脹하는것을보아 짜주기도하고 乳房炎에 걸리지안토록 注意하여야한다 離乳後의 仔羊의 飼育은

成羊 과不變하나 飼料는充分給與할것과 運動을充分히課할것이조타 仔羊은成中의諸作業을 簡單히 示하면

化五日乃至七日—耳標又는斷尾、十日乃至十二日—斷尾、飼料給與開始、百日乃至百二十日—離乳

緬羊은 極히柔順한 動物이나

取扱 方法이 拙劣하면 생각지안흔 苦痛을 與하게됨으로 緬羊을 飼育하는者는 그取扱方法을 銘心하지안흐면아니된다

(가) 捕捉方法

緬羊을 捕捉할때에는 兩手로兩腰의 皮膚를 붓들고서毛를잡어다니지안토록 하지안흐면아니된다 또右手로 左後肢의飛節上部를붓드는것도 붓는데조흔一方法이다

(나) 引導方法

緬羊을 自己가 생각하는方向으로 引導하여가려면은 左側에서서 左手를 顎에 대이고右手로 꼬리를 누르며 이를 갓치는듯이하면 갓작히 前進하기 始作하는것임으로 그때頭部에대인 左手에 依하야方向을定한다

(다) 너머트리는方法

肢와 **乳房**의 治療에는 緬羊을 자빠트리지안흐면 아니되는데 큰緬羊은 容易하게 橫臥시킬수업다 이런境遇에는 左手로緬羊의 顎下로부터右肩을 누르며 右手로 腹下로부터 右後肢의 飛節上部를붓잡고 들면서 胸部로 緬羊을 떠미러 자빠트린다

(라) 水藥을 給與하는方法

腸虫의驅除에는 水藥을 給與하는일이만흔데 잘못하면 氣道에 너허서 異物性의 肺炎을 이르키는일이 잇스므로水藥을 給與할 境遇에는 充分히 注意할 必要가잇다 水藥을 줄때에는 緬羊의 右側에서서 左手의 拇指와

食指로 上顎을 붓들고 下顎을 미는로 밀고서 投藥瓶을 右口角으로너허水藥이 드러간때 下顎을 놉흔 左手의 손가락을 느추워 嚥下하기쉽게 하여준다 그때 頭部를 조금 우으로 드티주는것과 急히多量의 水藥을 넝치안흠이조타

靑春을 意義잇게하라

◇靑春! 대단히謳歌할것이지마는、 젊음의過誤로不自然行爲其他로、可惜하게도靑春期를헛되히보내는性的破綻者가世上에적지안함은어데까지나、遺憾千萬입니다

◇此等性的缺陷者의大部分은、그것을救하기어려운것으로斷念하고잇는분도만히잇는듯하나、決코悲觀할必要는업습니다

◇그러한분은、物理療法으로서世界的으로認定되여잇는『ホリック療法器』를 速히使用해서두번업는靑春으로도리켜고 他人과가티 健全한體質이되야意義잇는人生을보내시기切實히勸하나이다

男子性的欠陷이 器械의힘으로回復
自宅簡易療法

◇ 젊거워야할靑春을謳歌할수도업는 性的缺陷者처럼가엽슨것이업습니다 그리고 性的缺陷者는性格的으로도 漸次變質者가되는故로男子同志의 交際에도圓滿을缺하고成功을못하는外에 生殖腺內分泌도缺乏하므로病弱早老를 招致하고結局一生을廢人同樣不幸한 몸이됩니다

이가엽슨性的缺陷에 對해서從來 거이그適切한 療法이라는것이적고 興奮劑와오르몬劑의應用은도 한 舊式의眞療法乃至電氣療法等으로 겨우患者의뜻을 慰勞하는대지나지못하엿섯스나 드듸여 米國醫科大學敎授ホリック博士에依해서 物理療法의 原理가發見되야 그應用療器로서 發明完成된것이 即『ホリック療法器』입니다

◇ 本器는 性的發育不全에對해서 集血作用에依한 細胞의增殖을圖謀함과함께 또一般性的機能障碍(陰萎、早漏、遺精、夢精等)을復活케하는效가잇고 또個人의秘密治療에도適當한使用安全簡易、정말 理想的新療器로서 益益好評海外輸出도 끙장합니다

◇ 本器의原理를흉내내여 不完全한器械를 販賣하는者가잇지마는 一見同一品과如히보일지라도 그精緻한作用에잇서서 僞造品等이到底히흉내낼수업는點에 本器의效果偉大한 價値가잇다 本器의效果에對해서는 이미醫學博士五十餘氏가推奬하는바로서 이와가티有力한反證을가지고잇는것은他에그類를 만히 볼수업읍니다

그러면 前記症狀의人은 急히使用하고 可恐할 性的缺陷을速히 治療하시기 懇切히勸하는바 입니다

醫學博士五十餘氏 實驗證明推奬
登錄商標 ホリック療法器
金五圓 送料 內地二五錢 植民地五五錢
‖說明書添附‖ 別名으로密送
▲代金引換小包는 各送料十五錢增
包莖‖手術하지안코、自宅에서秘密이成形할수잇슴
☆ホリック包莖器 金四圓 送料 內地一五錢 植民地四二錢
效果不完全한 僞造物만한 반드시 ホリック를請求하시요
東京市芝區神谷町五八 東京 新療法研究所 電話芝三二二 振替東京七七二九

無代進呈 圖入說明書
◇性에關한 一般의知識은 只今은 普通常識으로 되엿습니다 ◇興味와 實益잇는性의新知識을 公開網羅하고 療器의內容까지도 詳說한『圖入說明書』를 葉書로申込하면 即時別名으로 無料進送함

科學的研究와 良心的製造의産物!

ミツワ石鹼
(미 쓰 와)

理想的溶解度를가지고氣分조케쓸수잇고 中途에부스러지지안허서經濟 汚垢가잘빠저 淸淨케되고 살거칠念慮가업고 豐麗한美肌가된다

世界的名聲과最高의品質을자랑하는優秀石鹼

本舖 東京·浪速 丸見屋商店

讀賣事變ニュース
主演 岡部九州男 木下雙葉 寬永間諜往來
主演 アナベラ ジヤン・ミュラー 最後の戰鬪機
大都本年度超特作大軍事劇 彩山三郞 九州男 大活劇 死の中隊
二十八日ヨリ 二十九日マデ

中央館 本三〇一四 永樂町
每日晝夜三回興行 第一回 一、〇〇 第二回 三、〇〇 第三回 七、〇〇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年藥
百補丸
京城堅志洞 平和堂 一劑十円

既然五月二十七日早터 朝鮮名畫大會 觀料 大衆的料金 二十錢 十錢
京城撮影所超特作 鄕土藝術의稱 原作李銘牛 監督洪吐無 朝鮮語全發聲 아리랑고개 文藝峰 文秀一 崔雲峰 主演 盧載信 許榮蘭 柳城愛 助演
京城撮影所超特作 監督洪吐無氏 朝鮮語全發聲 薔花紅蓮傳 文藝峰 沈京順 主演 李錦子 李春 助演
全勝키네마社超特作全發聲 熊谷草彈作品! 堀部安兵衛 大河內龍氏 主演 高堂國典 美島禮子 市川 助演
東日大每ニュース 支那事變戰捷ニュース
優美館 電光三九五

◇五月廿六日부터三日間!! 大衆料金 階上廿錢 階下十錢均一 (特別大興行)
◇RKO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반드로·S·바ー반氏監督作品 캉크名畫 目擊者 바ー제쓰·메레데쓰 마ー코主演 에드와ー드·자ー넬리 빨킬·포ー일 助演
嘉聞實演 松永德師特別來演 力技와氣合術 約四十分間
◇全勝キネマ特作全發聲版!! 時代劇 忍術山嶽黨 晉·壽山太氏 天津龍太郞 美島禮子 主演
桃花劇場 電光一三二三番

明治座 東洋劇場 謝恩御招待
神崎神聖堂藥品 直輸入株式會社 京城西大門入口 電話光 三三四四 一〇九四 七四四番

少年 六月號 단 십전

五項目으로構成된 勞働者의優待案
未曾有의人夫飢饉對策으로 請負業者를招集協議
咸南道에서

【咸興支社發】 미증유의 공사경기로 다수노동자들의 수급조절에부심하고잇는 함남도에서는그동안 노동자들의 통제내지우대(優待)에 대하야 여러가지로 생각한결과이 대외가를 염출하여서 오는삼십일에대창조(大倉組) 서송조(西松組) 송본조(松本組)등 주요한청부업자들을 초집하고서 그안을중심으로 간담회를 하게되엿다는데 우대안이란 대개아래와같다고한다

一、十二時間勞働制를 嚴守하며 殘業에對하야서는 相當한手當을支給할것

二、飯場料는 四十五錢을標準으로 하되 土砂崩壞時에는 請負業者側에서 負擔할것

三、有故休業時에는 假賃을 請負業者側에서 支給할것

四、貯金은 給料의 一割로하며 十圓에對하야 一圓의 賞與를 줄것

五、一個月二十五日以上 出役時는 賞與金으로二圓을支給할것 等이다

僞造幣使用犯에 懲役三年言渡

【木浦】 전남해남군 화산면(海南郡花山面) 김화순(金化順)(二三)이가 친구 김동섭(金東燮)(二○)을 짜저보고 자기어머니의돈일소비하고 거정을하게되엿스니 십원짜리지전 한장만그려주면 잠간 어머니에게 보이기만하고 찌저버리겟다고 속여서 그위조지전을 사용한사실로 목포경찰서지청 공판에 회부되엿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지난이십칠일 오전십시에 목포지청일호법정에서 진전(津田)재판장으로부터 구형그대로 김화순에게 징역삼년을언도하엿고 김동섭에대하야는 그림은 그렷스나 사용할목적이아닌고로 범의(犯意)를 인정치안는다하야 무죄의판결을 내렷다한다

四郡聯合會結成 運動陣容을强化
端豊線延長運動去益猛烈

【甲山】 북조선개척(北鮮開拓)의 제일선인 갑산지방은 산업개발상지중한 처지에놓여 잇는바 단풍선(端豐線)연장운동은 일즉부터 갑산(甲山)·풍산(豐山)·삼수(三水)·혜산 등지의 각군민이 합력하여 기성회를 조직하야 맹렬한 운동을 하여오든바 지난이십사일오후한시에 단풍선 연장기성회(端豐線延長期成會)갑산지회를 갑산면회의실(甲山面會議室)에서 개최하고 진정위원의 경과보고를비롯하야 금후운동전개에 대한대책을토의하고 우선사군련합기성회(四郡聯合期成會)를 속히 조직하기로 결의한 표자들로 삼수(三水) 혜산(惠山) 갑산 풍산 각군대표와 협의하야 각군대표 김철주(金澈柱)씨외수씨가 상경하야 요로에 진정하기로 하고 시급히실현을보리라한다

鑛山用物資의 配給統制組合

【海州】 연산액천만원의 생산액을 보이고잇는 광업황해도는 시설의 확충에따라 해마다 산액이 증가되고잇서 전조선제일위를 차지할려도 머지안흘리이라는데 따라서 광업자들 총독부방침에 황해도당국에서는 충독부방침에 제기관(統制機關)을 결성코저업마전부터 준비중 요지음그준비가 완료되엿스므로 지난이십오일 옹진(甕津)에서 각관계자를 소집하야 여러가지로 심의한결과 광산용 물자배급통제조합(鑛山用物資配給統制組合)을 조직하엿다한다

吉州郡新湖洞에 發疹窒扶斯猖獗
벌써死亡者가四名

【明川】 명천에잇서서 작년도에 발진지부스가 발생하야 수백명 환자와 다수한사망자를 내이여 몸소름을 끼치던 기억이 사라지기도전에 길주군동해면신호동(吉州郡東海面新湖洞)에는 이주일전부터 『발진지부스』가 발생하야 적극적으로 방역함에도불구하고 격렬한형세로 만연하기만하는 형편인데 지난이십오일까지의 발생루계는 이십여명에 달하야 네명의사망자를 내이엿슴으로 아무로 만연될것을 극히 우려하는중에 잇다고한다

來咸中鹽原局長 教育令主旨强調

【羅南】 염원학무국장(鹽原學務局長)은 이십오일 오전일곱시 북행열차로 라남역에도착하야 도청과군보를 력방한다음 경성(鏡城)에서 중학교와 농업학교를시찰하고 이어서 오후에는 미남?중학교와고등여학교의 시찰을맛치고 나서 소화교강당에 학부 남부각군의 교직원을 모아노코 일장훈시를 하얏다 훈시의 요지는 교육령개정(敎育令改正)에 따르는 인식을 철저히 시키고 그럼에는 내선일체(內鮮一體)국체명징(國體明徵)인고단련(忍苦鍛鍊)의 삼요소에 달렷다는것을 강조하얏다 어남은 주을온천에서 일박하고 이어서 청진(淸津)라진(羅津)웅기(雄基)를 각각 시찰하고 웅기에서 일박한후이십칠일은 때마침도청에서 열리는 부윤군수회의(府尹郡守會議)에 열석하얏다가 그날밤차로함흥(咸興)경유귀임키로 되엿다한다

時局을標榜하고 數千圓을詐取

【全南支社發】 본적을 전남연천군 어궁정(千葉縣千葉郡二宮町)에두고 주소가부정한 전파사범 석창포길(石倉浦吉)(四○)은지난삼월이래로 대전(大田)을 필두로 론산 군산 광주 라주 목포 여수(論山 群山 光州 羅州 木浦 麗水)등지에서 자칭해군조장으로 소위강연을 하고다니며 여비기타가업서 곤란하다하고 각처에서 무려수천여원에 달하는 금품을 사취한것이 아즉 확실한 피해액은 알수업고 범인은 망수헌병분대원에게 어실해일에 체포되여 엄중취조중이라한다

學校官廳엿보는 窃盜犯人逮捕

【元山】 얼마전 박·수시(朴、手業)라는 행색이수상한 청년한명을 붓드러노코 신체를수색한즉 그의수중에는 열쇠수십개와 체온계등이 들어잇스므로 그를본서에 유치하고 엄중취조하얏던바 그는 시내의회사、학교은행、관청등을 엿보고 단기는 절도임이 판명되엿다. 즉그는 지난십사일 시내 산제동에잇는 루씨소학교의 문을열고 침입하야 직원실에잇는 교재、체온계기타와 수예실에들어가서는 아동의수예품등 약육십여점을 절취한것을 비롯하야 또다시 다른학교를 엿보다가 전기와가티 부자펴온것이라한다

危機에빠진丸ナ米 格下防止에猛進
關西三道農務課와穀協과總督府提携
京阪神地方에出張遊說計畫

【平南支社發】 평안남북 황해삼도에서는 과거십수년동안에 산미개량(産米改良)에 주력한결과 마루나곡물협회(丸ナ穀協)에서 매년일산미전부는 마루나곡물(丸ナ米)이라하여 동경(東京) 대판(大阪) 방면에 이출해오는데 최근 미질(米質)이 떠러젓다하여 마루나미의 격하문제(格下問題)가 대두되여 원산지 관서지방일대에서는 적지안흔 우울을 느끼고잇던중경방면에서의 조선미격하운동절차구체화하여 질을중에 동경미곡상조인조에서 정식협의를 하기로되엿다는 통지를 밧게되엿다 이런소식은 관서지방일대의농민들의 십수년동안의 적공의상아탑이 일시에 문허질뿐아니라 격이떠러지면 일석(一石)에대하여 십오전내지 이십전이 떠러지게되므로 결국삼십만원이란손해를 관서농민이 부담하게되는중대문제로 화하게되엿다 이때문에 총독부에서도 그대로 간과할문제가 아니라하여얼마전에 삼도농무과장을 소집협의한결과 격하운동을 방지하는적극운동을 일으키기로태도를결정하얏슴으로 삼도농무과곡물협회간부 곡물검사소장 총독부관계관등이 합세하여 동경에건너가 "마루나미"다시말하면 판서방산미격하를 방지하도록각면계자를 역방유세(遊說)하기로되엿다

二百圓을喜捨 陳然應氏의美擧

【天安】 충남천안(天安)에서는종래시설한 교육계를위하여 금품(金品)을 자진기부하는특지가가업서서 교육시설에 향상유감이잇섯바 최근에는 세태의요구이엿든지 각학교에 귀중한금품을 자진히사하는 특지자의 수효가 점점만허진다 당지영정소학교는 특지가의 후원으로 그시설이착착진척되여가는바 하화시나 상의시며 겨타소집에절대필요성을느끼고 전기 『차이렌』을 설치하엿스면 하든차에 당지에 거주하는유지 진연응(陳然應)씨는 이딱을듯고 지난이십사일에 그학교에와서 전기 『차이렌』설치비로서 일금이백원의 신입을하엿다 씨는본래넉넉지못한 살림에불구하고 이와가티거금을히사함은 용이한일이아니라하야 칭송이자자하다

産米改良根本策 十二項目新施設
生産과收穫의二期에

【鎭南浦】 조선미곡계의 큰파문을일으키고잇는 마루나미 격하(格下)문제는 저간총독부당국과마루나곡물협회에서 극력대책을 강구중 유월중에는 대표위원이 도동하여 각관계방면과 절충키로되엿거니와 아무리위원을 파견한대도 근본방침이잇서야하겟는데 그근본방침으로는적극적으로산미(産米)를개량함에 잇다는것에 의견이 귀착되여 십이항목을 신설하고 이에응하여 근본적으로 산미를 개량하는일방대표위원들로 도동하여각방면에 그뜻을 설명하고 량해를 구하는등 마루나미를 차고도는 격하저지운동은 본격적으로 전개되리라는바 신설되는 마루나미개량시설의 개요는다음과갓다

一、生産改良
1、種子更新은 一年更新을徹底히할것
2、強苗의育成
3、適期移秧勵行
4、配合肥料의合理的使用而追肥限界期確守
5、金肥單用特히窒素肥料單用及多肥의禁止
6、成熟期의本水沓早期落水防止
7、早刈適期取를 勵行하고지取遲延의防止

二、收穫後의改良
1、本畓에서 稻刈取後乾燥操作의 改善을圖하고 可及的束乾勵行日數를 적게할것
2、火力乾燥에根本的改善을加할것
3、籾摺의 厚乾을 勵行하고 搬擊度數를可及的增加
4、檢査米의容量量의確保徹底

海苔養殖講習

【大田】 충청남도 산업과수산계(忠南道産業課水産係)에서는 충남의 특산품인해태(海苔)장여를보급시키기위하야 오는팔월일일부터 내년삼월말일까지 대천어항(大川漁港)에서 해태양식(海苔養殖)에대한 강습회(講習會)를 개최하리라고한다

"人形집"지키려는 新版"노라"受難記
法廷의協議離婚勸告에도不應
大邱法院에色다른離婚訴訟

【慶北支社發】 신문화의수입이느저진 과도기(過渡期)에잇는 조선사회에서는 안해의 무지함을이유로하여리혼문제를제기하는 수만흔청년이잇는반면에 "인형의집을 탈출하는큰대의"노란" 도적지안라 조선내각지에서 일어나는 젊은남녀의 리혼소송사건의 대부분은 이두가지방식중 전자가아니면 후자의어느한편인것이 정한코ー스다 지난이십육일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에버러진 젊은남녀의 리혼소송사건은 이두코스를 정반대의방향으로 것는점에서 일반의흥미를 끄는동시에 조선사회에서는 보기드믄현상으로 우리사회에 적지안은문제를 던지고잇다 사건이란 경북성주(星州)출신 배아성(裵我城)(二三)(假名)은 대구부내모중등학교를 중도퇴학하고 모녀고보(女高普)를졸업한 정숙녀(鄭淑女)(二一)(假名)라는 인테리여성과 지금부터 삼년전에 결혼을하엿든바 그학식의정도가 남편보다도 그안해되는여성이 훨신유식하여 매사에잇서서 자기의 의사와 남편으로서의 위엄을 가지지못하여왓든바 얼마전에 그안해되는 정씨로부터 모종의 편지를바덧는데 그내용은 인테리여성으로서 자기보다 교양수준이 노픈 남편에대한 요구와 현남편에대한 불평을 적은아라가운 하소연의 편지이엿다 자기안해의 이 편지를 받은 남편되는 배(裵)씨는 가면적도덕(假面的道德)에 얽매여 남편의 노예가되기를 실어하야 안해의 이혼되지안는한쌍방의 분쟁어는 자기이견을 모욕하는것이라하야 드디여 안본(岸本)변호사를 대리로하야 이혼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엿는데 또한 피고측인 전기정씨는 한규용(韓圭鏞)변호사를세워 응소하야 그내외간의 소송문제는 일반의 비상한 주목을 끌고 계속되여오든바 재판소측에서도 이당사자가 모다 지방의 유력한 집안의 자녀들인만치 이사건을 신중히 취급하여 지난이십칠일에는 원、피고쌍방을 모다 불너노코 위자료(慰藉料)청구원이라는 조선이혼소송사에 신기록인다액으로 협의이혼을 하도록권고하엿는대 대하야원고측에서는 위자료청구액을 내고라도 이혼을하겟다고 주장하나 피고측에서는 이재판소측의 조정을듯지안코 이혼을반대하여오는바 차회공판기일인 오는 유월이일까지에 쌍방이모다 고려하기로되엿는데 이이혼문제가 재판소측의 조정에의하야 해결될것인가가 세인의 주목을 끌고잇다

公金橫領逃走한 學校組合雇員 海州署서押來取調

【海州】 해주서(海州署)사법계에서는 해주군학교조합(海州郡學校組合) 전고원 해주읍북욱정(海州邑北旭町) 일백육십삼번지 김정섭(金正燮)(二四)을 수일전부터 동서에 인치하고 공금횡령죄(公金橫領罪)의 혐의로 엄중취조중이다 사건의내용을 드르면 전기김은 소화오년부터 동서에근무하는동안 조합비를 공금을 착복하여 경소비하고 행방을 감추어버린중 최근 경성부취산동(京城府??町)첩(妾)의집에 숨어잇는것을 해주서에서 탐지하고 상경활동하여 붓드러다가 취조하는 것이라한다

海州邑會에서 戶別稅를査定

【海州】 해주읍회에서는 (海州邑會)는 이십구일 ... [illegible]

昌城殺人事件 懲役六年求刑

【新義州】 창성군 동창면 대유동(昌城郡東倉面大楡洞) 김수길(金壽吉)(二?)에대한 상해치사사건의공판은 지난이십칠일오전열한시 신의주법원에서개정되여 고전(高田)검사로부터징역육년의구형이 잇섯는데 언도는 오는삼십일로 결정되엿다

上海서온金鍾者에 懲役八年을求刑
治維違反과外患罪로

【慶北支社發】 대구부남산정(大邱府南山町) 김종(金鍾)(二二)은 동경의국어학교(東京外國語學校)를 마치고 작년에 상해(上海)에가서 공부하다가 귀국하엿다가 다시대구에 나와잇다가 사상사건의 혐의로 대구서(大邱署)에 체포되엿든바 그는 치안유지법위반(治維違反)급 외환죄(外患罪)의 피고로서 예심에 회부되어 지난이십칠일 오전 열시부터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제사호 법정에서 주심대정(大井)재판장 주재로 공판이 열리엇는데 피고의가족은 물론이요 만게 사건이란 관계로 재판장은 일반의 방청을 금지하고 심리를 진행하엿든바 일체의사실심리가 끗난다음 검사로부터 징역팔년의 구형이잇섯다고하며 그판결언도는 오는유월삼일 행한모양이라한다

沸流潭에投身 原因은生活難

【海州】 지난이십육일아침 해주읍남욱정(海州邑南旭町)지정 화정(和町)김영수 방엽(?)의 집에서 살던 사람이 억사체가 떠잇는것을 발견하엿는데 그는 해주에서 오래동안 생활난으로 고민하든 끄테 자살한 모양이라한다

悠悠自適의牛公(?) 大邱郊外에서

다름표王의 다트-콜럼비아 南圭李 공맹요나고이아 他 馬丹朴 쏭고 新流行 검비된 넝청이 익살 새 레코-드

숭어어란 朝鮮鑛研究所 京城府??町 都散賣

여러분의 사랑하는 子女들의 우장옷은 다준비되엿습니까 雨期는 열로부터 시다 市內는 電話하시면 ... 代金引換으로 ...
雨衣都散賣 朝鮮防水布製所
トラック 車雨 雨具 ... 作業用 ... 天幕 其他 防水布

キヱ印 カトール 家庭用芳香强力殺虫液 家畜專用キヱカトール도잇슴
蠅、蚊、南京虫、ウジ、蚤ダニ等を根絶して惡疫を防止し室內を淨化して衛生を守れ
よくきく一番で強い

虫退治 マクニン 꼿먹여라! 蛔虫이나오면 元氣도난다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ヤパンモア 專賣特許 藥用구예ー무 여드름 죽은깨 기미 엽샘
파파인酵素와 아루몬드의 相乘强化된 藥効가大評判
株式會社 杉田商店

百日咳에 코데스

우수한치림약 리베ー루
염려말고、의심말고 꼭한번시용하시오
五日分 貳円五十錢
大阪市東區 竹村製劑所 各藥店에잇슴

山口樂器店鍾路支店 京城府鍾路二丁目
빅타ー 콜럼비아 포리도ー루 키ー투리 蓄音器
빅타ー 四五、○○부터各種
포리도ー루 二八、○○부터各種
在庫豊富
콜럼비아 コロムビア蓄音器 帝蓄 テイチク

昭和의常識 混雜한대서 메슥거릴때、爽快케하는 仁丹

고추가루 도매상 第一製粉工場 仁川府龍岡町 電話一二六五番 振替京城二九三九番

少年 六月號發賣 ...

最新型目覺時計 最新型高級目覺實物 外鈴付 目覺クローム
但目覺ハ前金ニ不拘實費送料註文主ノ負擔ヲ願ヒマス

二重景品附 大投賣 全品三十ヶ年絶對保證付
祝伏朝鮮文學全集 短篇集(上) 三版發賣中
十八金クサリ大奉仕品 純金クサリ奉仕品 ウオルサム・エルヂン腕時計
高級萬年筆投賣 最新流線型
クローム側腕巻時計八型 クローム側腕巻計九型
精工堂時計店 東京市向島區吾嬬町東三丁目十六 振替東京一五七九四一番

金組創立記念 三十一週年

組合員數百六十三萬名 本支所九百二十四

水田財務局長談

明治四十年五月三十日 地方金融組合規則이 朝鮮에 發布되어 本日은 바로 其三十一週年에 當한다. 金融組合關係方面에서는 이날이 意義기픈날을 記念하기 爲하야 每年本月本日을 金融組合記念日로 定하고 이날을 期하야 全朝鮮一齊히 組合의 宣傳과 普及에 努力하며 過去를 回顧하는同時에 將來에 對한 向上進展의 決意를 새롭게하는것은 어에 有意義한일이라고생각하는바이다.

말할것도업시 金融組合은 共同自助의 精神을 根本基調로하는 協同組合으로서 組合員에 對하야 必要한 資金을供給하야써 其經濟의 發達에새로운 活力을 與하야 地方産業의 開發을期하므로써 其重大使命으로하는바이나 이와同時에 勤勞精神의 培養, 勤儉貯蓄의 美風을釀成하고잇는것으로 創設以來 何等의 跌蹉도업시 業績이隆隆하게進展하야 本年三月末現在에 잇서서는 組合數는 本支所를 合하야九百二十四, 組合員 百六十餘萬戶로 其中 農家組合員數는 全朝鮮農家總數에 對하야 五割三分의把握率을示하고잇다 其業務計數에잇서서도 預金一億七千九百餘萬圓 貸出金二億三千二百餘萬圓을 算하야 前年同期에比하야 預金에잇서서 一千七百餘萬圓 貸出金에잇서서 四百餘萬圓이 增加하고잇다 또昭和七年來 農村振興運動이提唱되자 金融組合에잇서서는 本運動의重要目標인 農村의 高利債整理事業을 執掌하게되어 爾來着着其實效를내서 今日까지에 總額四千餘萬圓의 高利債의整理를 完了하고 또目下繼續하야 銳意其整理에 努力中이다 其他自作農創定資金의 融通을비롯하야 農事改良資金, 店舖設備資金, 米穀應急資金, 水害復舊資金等 低利資金의 融通을行하고 殖産契의指導에 當하는等 地方産業經濟의 進展及庶民의金融에 絶大한貢獻을 與하고잇는것은 世人이다 認定하고잇는바이다.

이가티組合業務가 良好한成績을 收得하고잇는所以는 制度그것이朝鮮의 民度事情에 잘適合하야 世人의金融組合에對한 認識이 漸次가띠가는 一面 其中央機關인 朝鮮金融組合聯合會의 統制잇는 指導와 組合當事者의 誠實한 運營에依하는바가만허 關係者에 對하야 深甚한敬意를表하는바이다.

現下 我國經濟界는 支那事變에 際하는 所謂 戰時體制下에 잇서 全國이 此目的達成에 協力하고잇스나 如斯한 重大時局에 際會하야 國民의 大部分을 占하는 所謂 庶民階級에 對하야 國策遂行上 生産資金의 供給을圖하는 反面, 不急事業의 抑制, 物資의 軍需物資, 輸入物資에 對한 消費의 節約과 勤勞에 依한 收入의 增加에 對하야 貯蓄獎勵를 行하야써 外에잇서서는 長期戰에 備하고 안에잇서서는 國民生活安定에 資하는것은 刻下喫緊의 要事이다. 此意味에잇서서 朝鮮에서도 內地에 順應하야 金融...

矢鍋金聯會長談

五月三十日은 只今부터 三十一年前 即明治四十年(光武十一年)에 金融組合規則이 制定發布된날로 今日로써 記念日이다 組合關係者는 다가티 既往을 回顧하는同時에 將來에向하야 組合事業의 進展을 期하고잇는것이다.

金融組合은 只今全朝鮮에 七百十九組合이잇는데 그中 六十二組合은 市街地에잇는 都市金融組合 六百五十七組合은 農村地方에잇는 村落金融組合이오 다...

公定、基準價格制度 全般的擴大方針

國民生活必需品騰貴取締코 個中엔事變前價目標로値下

國民生活必需品에 對하야서는現在以上의 價格騰貴를 招來치안토록 嚴重取締하며 品物에依하야서는 支那事變前의 價格을 目標로하야 値下를 行케하기로되엇는데 生活必需品의 價格抑制에 關하야서는 池田新商相도强硬한決意를 가지고잇서 暴利取締만으로는 充分한 效果를거두지 못할것을 認하고잇스므로 어떤方策을 講究할것으로보인다 物價委員會는 新商相就任을 契機로 今後 一層 活潑한 活動을 開始하리라고보인다

第二回中央物價委員會

【東京電話同盟】第二回中央物價委員會는 廿七日午後四時부터商工省에서 開催하고 村瀨委員이 議長이되어 議事에 入하고 第一、第二兩特別委員長으로부터兩委員會의 經過를 綜合報告하고 어報告를可決、同五時散會하얏다 今後의 一般物價抑制에 關하야서는 公定價格制度及 基準價格制度를 全般的으로 擴大하야斷乎한 方針으로써 臨하고 特히...

日滿實協役員決定

日滿實業協會는 二十七日의總會後 理事會에서 如左히役員을 決定하얏다

▲會長 門野重九郎 ▲副會長 安宅彌吉 張本政 丁鑑修 中野金次郎 ▲常務理事 片岡安 瓜谷長造 王荊山 賀田直治 高橋康順 中川正左 ▲監事 井上匡夫 大平賢作 許億年 四戶友太郎 史燦亭 韓山愛一郎

洋灰操短率

「三割四分으로決定」一割二分의緩和!

「세멘트」聯合會의 洋灰操短緩和에伴하야 朝鮮의 緩和率은 注目되는데 總督府商工課에서는 關係業者의 意向을 聽取하고 廿七日 六月-八月間의 操短率을 現行보다 一割二分緩和하야 三割四分으로하기로 決定하얏다

右는 時局關係乃至 北朝鮮方面의需要增加等을 考慮하야 六一八月間의需要量을 廿六萬噸으로 推定하고 八月末의 在庫量을 十萬噸으로한 想定에 基한것이다

『日本海湖水化』目標 內鮮滿連絡發展

『日本海經濟懇談會』의結論

日滿實業協會主催의 日本海經濟懇談會는 二十八日 午前九時부터 京城商工會議所에서 開催하고 關係者約百餘名出席, 中野日滿實業協會副會長이座長이되어 一, 日本海를 通한內鮮滿間連絡發展을爲하야 産業貿易의 振興에關한事項 二, 日本海를通한 內鮮滿間 連絡發展을 爲하야 交通刷新에 關한事項 三, 滿洲移民遂行에關한事項等을議題로하고 金融, 取引, 貿易, 海陸運賃, 稅關, 港灣, 航路, 鐵道等으로부터 各角度로부터 具體的意見開陳이 잇고 愼重懇談한結果 內鮮滿間의 經濟提携와 國防充實의 要素를 培養키爲하야서는 東北滿...

鮮滿電氣周波 統一問題再燃

鮮滿間의 電氣周波數의 統一은 鮮滿關係方面의 問題가되어今日까지 아무具體化가 업섯는데 二十七日日滿實業協會總會席上日本電力副社長內藤熊喜氏가 鮮滿經濟一如의 見地로 同問題를가지고 緊急動議를 提出하야 總會決議事項으로써 關係當局에 要望키로된것은 注目된다 即現在朝鮮의 電力은 朝鮮의 獨自的電氣統制에 依하야 六十「사이클」로統一되어잇스므로 그統一은 「사이클」로되어잇스므로 滿洲는五十「사이클」로 早晩解決되어야할運命에잇는데이에 要하는 經費는 三千五百萬圓을 要하야 早急한 解決은 結局可望이업고 漸進主義에 依한 統一이 此際適當하다한다 內藤氏는 同問題와同時에 鮮滿國境에 大工業地帶를 設定하자는 緊急動議도 同協會總會에 提案하야 關係方面에서 注目을 이끌고잇다

工業組合公布되면 中小金融合理化

◇…德山商銀支配人談

東京大阪의 中小商工業과 軍需下諸工業金融을 中心으로視察中이든 德山商銀支配人은 二十七日歸任하야 如左히말한다

金融市場은 阪資가 特히기러하얏다 今後도 貯蓄獎勵의 效果가 政府支拂增加等으로더욱 緩慢할것이다 銀行預金은 當座預金의 增加에 다가 最近은 定期預金의 增勢가 顯著하며 여는 樂觀人氣의 出現으로보아도조흘것이다 中小金融方面은 事變以來幾分影響이 薄하엿스나 最近은 注目할만한 動向이보인다 從來의 中小方面에 對한 金融에서버서나 最近은 中小商工業의 經營改善을 條件으로 金融하는데 商店法과 組合의 强化, 軍需下諸工業의 助成에 自效果的인것은 中小金融은 産業組合을 對象으로하게되엇는데 工業組合은 對象으로하는것을 못하는데 各銀行이 모두 相當한 金融코 朝鮮도 近間 工業組合令이 公布되면 金融으로서도 相當히 開拓할餘地가 생길것이다

各市場打診

政局安定으로好轉

株式

昨週末의 崩落市勢는 急旋回的 變調를 보이게되엇다. 그後 好材出盡으로 보고저하는 一部의 賣人氣와 利喰賣物로 다시 反落하야 다시不勢力되엿스나 週末의 反騰的氣勢等을 보건대 低價에는 이低金利時代에 高日步와 乘替日步를 무는것보다는 차라리 正株를 引受하는것이낫다는 見解에서 正株를찾는이가만히 東京은 十年來의 記錄的逆日步가되는 同時에 歐洲情勢等을傳하야 買迫륭은 漸次警戒되고 人絹高로因한 纖維株高로 反戻商勢가 되엇이 週央에 이르러 內閣補强工作의 完成에依한 政局不安解消를 好感하고 漢口政府動搖說과 歐洲情勢再緊迫等을 傳하야 飜然上放하자 軟派의 踏上이되어 東新, 鐘紡이 모두大臺를 回復하는 活潑한商況을 展開하야

期米

深入落도難期나 好順氣로低調!

無材料時代에 入한 市勢는 一高一低의 浮動에 그친 朝鮮夕弱, 夕歡朝壓의 反復으로 推移하든中, 天候는 雨順風調의 好順氣로 移秧은 樂觀되어, 强硬態度를 持續한 産地農家態度도 어느程 軟化의 兆를 보이게되어 正米의 顯含과함께 市勢는 浮動中에 弱含으로 다시一段低價를 示現하고 需給하게 다시一段低價를 示現하고 勿論周圍環境이 悲觀할餘地도업고 深入落도 疑問이라하나 바마라는 이安心的場面으로 買占하고잇스며 地場은 二防戰에 賣向하고 잇는 고만치 亦是 一落은 未免일것이오 그後 越月한後도되어 端境期에 드러갈順序이라고 보어는데 무엇보담 今後의天候를 注目할必要가잇을것이다

어 市勢는 統制强化等等을云謂하는 悲觀的人氣는 依然한바잇고 今後의新政策强行等을생각하야 依然한 活躍은 기다리기 어려우나 新買力의勢力도 相當키難하야 어 賣人氣를 後退에 上進하는데잇서서는 畢竟 大勢轉換을 보이고 말는지모른다. 勿論大勢轉換後 中段保合에 入하야 見枯의 保合이될것도 事實일것이나 큰低落은 難望일것으로 低價鍛鍊의 保合이되지안을가한다

人絹

一氣大棒上示現 九十圓大臺肉迫

昨週人絹의 暴騰으로 硬化模樣을 보인 市勢는 依然 戾賣人氣에 不拘하고 今週에들어 依然上放한것이 賣方의 踏上, 好材의 加擔으로 一氣二十圓까지 棒上을 示하야 先限은 八十圓大臺를 一氣回復 九十圓大臺에 肉迫하는近來稀有의 場面을 展開하게되엇다 이理由는 人絹聯이 輸出振興策으로 滯貨買上을 爲한 共販會社設立을 計畫하게된것과 六一九月의 操短이 實效五、六分의 擴張을 內定하게 되엇다고 傳하는 事實과 또 政府는 軍需品原料輸入에 癸거서 纖維原料인 人絹輸入을 抑壓하고 今後 輸入 新規는 絕對不許可할方針이라고 傳하고잇는 事實이잇는데다가 어름에 會社가 下期原價高를必至的 豫想으로 物을 完全賣止하는것 等인데 어

生糸

價位買物이潛在 意外로市勢底强

新繭出廻期에直面하야 市勢는 現物渡는 順調로운데도 不拘하고 蠶繭은 纖維에苦悶하는 市場은 全혀 整理氣分뿐이오 積極的賣買는 보이지안는데서 可, 不可가 업는 千篇一律的保合으로 經始하고잇는光景이나 期近物은 一部弱氣의 賣崩로 動揺하고잇기때문에 新絲商勢接近과함께賣逃 或은價位買落化로 意外로底强味를 不失하

綿絲

米棉의落潮滔滔 二百圓臺維持難

綿業에對한統制는 마침내 本格的實施段階에 오르는데 的挫道에 人氣는 全혀 不振 綿絲의 米棉의連日暴落을보고 價位는 漸次低下하야 綿絲의二百圓大臺는 드디어維持가 困難하게되엇다 勿論米棉의 動向이가장注目을要할바이나, 오래保合에서分岐한市勢이므로 그下値가어데서阻止될지 疑問이오 輸出不振은統制强化로 一層困難한事情 등을 여러 重大等으로 이市勢의 前途는 依然暗澹을 不許하나 內需向업스므로 新面을 開하게될지도알 改組後의 財界策은 輸入緩和等으로 이러한 點은 今後 注目할要할點이 뭇하다

金組業務概況

(昭和十三年三月末)

組合數	七一九
(都市組合)	六二
(村落組合)	六五七
組合支所數	二〇五
(都市組合支所)	三
(村落組合支所)	二〇二
組合員數	一、六三六、七八八名
(殖産契數)	(三、七二八契)
拂込濟出資金	一三、六四四、八七五 圓
諸積立金	二二、二〇〇、一七九
借入金	一一四、六四〇、九〇〇
預金	一七九、五一五、二四五
預還金	九九、〇八九、一二一
貸出金	二三三、一七八、一一九
媒介貸付	二二、九六八、一二五三

朝金聯業務概況

(昭和十三年三月末)

會員數	七八四組合
(金融組合七一九、産業組合〇、漁業組合五)	
拂込濟出資金	三三、三四六、四二七 圓
諸積立金	一、〇一九、七六四
金融債券發行高	二四、六四九、二八六
預金	九二、〇八〇、二七一
有價證券	七、三八三、〇四六
預還金	二四、六九八、〇八八
貸出金	二二〇、一八二、三三四
共同購買高(十二年度中)	一〇、四九六、四五八
共同販賣高(十二年度中)	一三、一六〇、〇七四
大東共濟基金	二〇八、四〇二
特別給與基金	二、七八五、五六九

株式

前場採合 先高後低

昨日의反落後今朝에는 外電의 區區와함께人氣는 氣迷裡에 今朝寄付는 諸株의 强弱區區로不冴狀을 呈하야 東新、鐘紡은 少高裡에 給作되엇스나 一高에는다시 賣叩되어 伸悩裡에다시反彈로 市勢는아직도賣人氣에 놀리는光景이어서東新百五十圓臺門戰을 反復하다가 結局東新百四十九圓一、鐘紡百四十七圓으로 今週를마치고後場은 例休어엇다.

今日의市勢(廿八日)

▲京春鐵道六千五百噸 ▲西鮮中央鐵道四千噸 ▲平安鐵道二千五百噸 그리고 朝鮮窒素의 多獅島도車輛되어 軌條不安이 解消되엇다

私鐵「레―루」所要量入荷

朝鮮內私鐵의「레―루」入荷는 相當히 圓滑되엇스나 三菱商事의손을經由하야 各新設私鐵의所要量은 全部上期中에 入荷케되엇다

一進一退商勢

昨日의 反落狀으로 보아서는 買妙味도 적은듯하야 株價의 低迷이 要望되엇스나 今朝에는 다시 一高로 採合하야 瓦落的場面도 一低로는 暗示하고잇는데 비록 統制强化의 階段은 不變이며 事變長期戰에 公債消化問題와함께 賤으로는 早急한活躍은 期待難이라 할는지모르나 아모리 貯蓄獎勵...

國債底堅

【東京電話同盟】內外情勢關係로 市場은 아직 傍觀氣分이나 市勢는大體期末金融을 樂觀하고잇는때라 保合을 示하면서도 底堅는 小固하야 佛貨만無하다

△四分利 △一回四分(〇三五)△二回四分(〇三五)△佛貨四分半(〇三五) △二十二年物(九四五) 五錢小强되엇다

期米

好順氣로 續落

前場小落

阪地期米四圓八十七錢으로 今朝는 雨天으로 阪地매도 中心으로 落하고 當限은 一圓七十五錢인 九丁인六丁低 中은二圓丁인五丁低로 先限은卅二圓廿五錢인 亦五丁低로 墉落始한後 阪地二節九十錢으로 最高로 一、二錢의保合을繼續하야 廿五錢의 當限低로 廿一、二錢에서 膠着이다가 結局阪止

當地는下溢!

阪仁擴縮關係?

阪地는 今朝三十四圓八十錢인 又復七丁反落을 受하고도當地는 僅히五丁低인 三十二圓二十五錢에 初付하야 因而下溢光景을 呈하는모양이다 此三阪仁의 鞘가二百六、七十丁으로 擴大되어잇는데

當分底採保勢

去般의 賴上하엿고 高價飛付買도 거의 相當하야 어대로 上進하는것은困難視되는데서 當然히 一押은 續進도 못하야 高價는 阻止된形이나 今朝에도 續落의 못하고 一高後의 反彈로 採合이니 市勢는 此邊에서 暫時 保勢될 보일 順序가 아닌가 생각되는

移秧은無難?

朝鮮의 麥作은 一時凶作說이 多하엿스나 今月初旬以來 種種의 好雨를 齎來하야 不知中凶作說은 解消되고 오히려 平年作을 超越하리라는 樂觀說이 擡頭하고 早害의 憂慮가 不無하던 稻板의 生長도 殆히 良好하다하야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	限	
仲	[illegible]		[illegible]

正米 定期低로 低落

京城下押

頭上은 好順氣에 比로 奧地側도 作付樂觀은 不動이나 農繁期라 奧地는 再次朝來物價抑制說에 奔落한것을보고 人氣軟化하야 一部의 買疲어므로 市價一〇錢 賣叩 되엇다 阪地가 擴頭하야 四等三一、六〇 一等百米一三、一五

仁川反落

內地入荷는 依然弱하야 定期 病氣味인데에

木浦下放

潤雨로 用水念慮는 金혀업고 奧地는 實物薄이라하나 出廻四輛이잇고 加하야 政府改組强化도 新穀相의物價抑制說이 傳하야 各地期米는 一齊奔落하야 人氣는 一段軟化하고 月末換金急의 賣物도잇서 忽然 二十錢下放을 演하엿다

四等三一、六〇 ◎銀坊主三等三一、二〇 一等白米一三、九〇

群山續落

苗代時代에 天候云云은 尙早라고하는 奧地도昨夜의 再雨로 一部에서는 換金的賣物이 出現하고 市中은다시 植付順調 書田好調 豐作人氣益益濃厚化하야 軟調를呈하며 蓬萊米의 本格的內地入荷殺到旺盛으로 高位의朝鮮米에는 入荷到來치안허 地場賣氣도今朝各地淸算이 奔落을 演하니 傍觀的 期待의 傍觀으로 市價十錢續落되엿다 ◎銀坊主三等三一、八〇 四等三一、六〇 一等白米一三、

釜山奔落

陽天後의 降雨로好順調歌人氣는 益益擴大되어 內注杜絶과 相俟하야 人氣는極度로 惡化해서 奧地一部의 白米換金賣와함께 場面은 軟弱하야市價十五錢低로 奔落이엇다

◎穀良三等三一、三〇 四等三一、一〇 一等白米一三、二〇

大邱閑散

頭上靄天으로 市中은 益益深刻味를加하엿스나依然한 內注杜絶과 價位觀의 買疑躇로人氣는 意外로不昂하야 冷靜傍觀의 閑散이엇다 四穀良三等三一、六〇 四等三一、四〇 一等白米一三、〇〇

當局期米情報

【大阪電話同盟】今朝寄低는 蓬萊米의 急落으로 買方一齊低이나 低價에는 賣物이 全혀 不落落하든 場面은 一般持米側의 態度强硬하야 各種商勢는 仲但은 大體昨日比十錢低이엿다

今日財界

(廿八日)

◆米 今日前場 比較(單位十錢)

(廣告)

朝期米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株式 期米 玉 京城黃金町 仁川本町 マルタマ取引店

京城 金益證券 仁川 益康

海外經濟

(二十七日)

銀行券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金利・手形交換

◆東京金利◆ ◆大阪金利◆

鯛油粕・麥粉

◆阪神鯛粕◆ ◆阪神鯛油◆ ◆日本麥粉市勢◆

金銀價

◆東京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對外爲替

正米

◆京城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仁川正米◆

正租

雜穀

◆京城雜穀◆ ◆仁川雜穀◆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滿洲商況

◆大連 特産 市勢◆

京城物價

(廿八日)

株式

◆朝取短期◆ ◆朝取主要阪組高◆ ◆實定 代引 日步◆ ◆大阪短期◆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東京短期◆ ◆東京短期 取組◆ ◆東京現株◆ ◆朝取短期賣買高◆

期米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阪期米◆ ◆大阪期米取組◆ ◆東京期米◆ ◆大邱期米◆ ◆釜山期米◆ ◆木浦期米◆ ◆群山期米◆

綿糸

◆大阪綿糸◆

棉花

◆大阪棉花◆

人絹

◆各地人絹◆

生糸

◆橫濱生糸◆

砂糖

◆大阪砂糖◆ ◆東京砂糖◆

[illegible]